



일대일로 배경하의 한중 경제 협력 : 중국 일대일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10:00~18:10

장소:

중국 쿤밍 인터컨티넨탈호텔

공동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운남성사회과학원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Yunn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행사일정

일 시	내 용	
08.17	한국 인사 중국 도착 (인천-중국 쿤밍)	
08.18	09:30-10:00	등록
		참석자 등록 및 VIP 미팅
	10:00-11:00	개회식
		[개회사] 안세영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환영사] Mayong 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11:00-12:00	[Session 1] 일대일로구상을 활용한 한국·원난성 간 경제협력
		[좌장] 임호열 본부장(KIEP)
		[발표 1] 일대일로와 원난성 발전방향 Liyanfeng 교수 (원난재경대학교) [발표 2] 일대일로전략과 한·원난성 물류분야 협력방안 이주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론 및 Q&A] 안덕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문희철 교수 (충남대학교) Mayong 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12:00-13:20	오찬
	13:20-14:40	[Session 2] 국경무역의 활성화
		[좌장] Chentiejun 연구원 (운남성 사회과학원)
		[발표 1] 국경간 교역(Cross-Border Transactions)의 쟁점과 전망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발표 2] 중-베트남 국경무역 현황과 활성화 방안 Mahongpo 교수(중국운남성 홍하학원) [발표 3] 북중 국경무역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태항 교수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토론 및 Q&A] 표인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홍열 교수 (베트남 국립타이원재경대학교) Muwenchun 부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08.18	14:40-15:40	[Session 3] 농업협력
		[좌장] 최세균 박사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1] 윈난 농업의 특징, 현황 및 발전방향 Zhengbaohua 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발표 2] 중국 운남성 농업 현대화 방향과 시사점 이수행 박사 (경기연구원) [토론 및 Q&A] 박인성 팀장 (충남연구원) Zhangtiwei 부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15:40-16:00	Tea break
	16:00-17:00	[Session 4] 보건의료 · 바이오 협력
		[좌장] Kangyunhai 연구원 (운남성 사회과학원)
		[발표 1] 한국-중국, 한국-윈난성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협력방안 윤강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2] 윈난(云南) 중국 한방의약 산업발전 전망 Huqingzhong 연구원 (운남성 사회과학원) [토론 및 Q&A] 문주영 행정처장 (前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Xuanyi 연구원 (운남성 사회과학원)
	17:00-18:00	[Session 5] 종합토론 (Roundtable)
		[좌장] 김종섭 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상호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도훈 박사 (前 산업연구원 원장) 이학노 교수 (동국대학교) 조 철 실장 (산업연구원) Dongdi 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Wangshilu 原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Leizhuning 부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08.19~ 08.20	18:00-18:10	폐회식
		폐회사
08.19~ 08.20		산업시찰 : 국가관광리조트, 하이테크산업단지(바이오의약 등) 한국측 인사 귀국(중국쿤밍-인천)

참석자 명단

국적	성명	소속
한국측	안세영 Ahn Se Young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호열 Lim Ho Yeo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
	김상호 Kim Sang H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도훈 Kim Do Hun	前 산업연구원 원장
	최세균 Choi Sei Kyun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섭 Kim Chong Sup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안덕근 Ahn Duk Geu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황 Kim Tae Hwang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문희철 Moon Hee Cheol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이학노 Lee Hak Loh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 철 Cho Chuel	산업연구원 실장
	표인수 Pyo In Soo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대원 Kim Dae Won	서울시립대학교
	이주호 Lee Joo H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홍열 Lee Hong Ryul	베트남 국립타이원재경대학교
	윤강재 Yoon Gang Ja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행 Lee Soo Haeng	경기연구원
	박인성 Park In Sung	충남연구원
	문주영 Moon Joo Young	前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행정처장
	조병덕 Cho Byung Duk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장
	조장호 Cho Jang H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원
	홍진희 Hong Jin He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조고운 Cho Ko U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인선 Lee Ihn Sun	동시통역사
	장현주 Chang Hyun Ju	동시통역사
중국측	马 勇 Ma Yong	운남성 사회과학원 베트남연구소 소장
	李严峰 Li Yanfeng	운남재경대학물류학원원장
	陈铁军 Chen Tiejun	운남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马洪波 Ma Hongpo	운남성홍하학원 교수
	穆文春 Mu Wenchun	운남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郑宝华 Zheng Baohua	운남성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소장
	张体伟 Zhang Tiwei	운남성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부소장
	康云海 Kang Yunhai	운남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胡庆忠 Hu Qingzhong	운남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宣 宜 Xuan Yi	운남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王士录 Wang Shilu	운남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소장
	雷著宁 Lei Zhuning	운남성 사회과학원 미얀마연구소 부소장
	董 棣 DongDi	운남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Contents

[Session 1] 일대일로구상을 활용한 한국·원난성 간 경제협력	7
일대일로와 원난성 발전방향 Liyanfeng 교수 (원난재경대학교)	9
일대일로전략과 한·원난성 물류분야 협력방안 이주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5
[Session 2] 국경무역의 활성화	57
국경간 교역(Cross-Border Transactions)의 쟁점과 전망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59
중-베트남 국경무역 현황과 활성화 방안 Mahongpo 교수 (중국운남성 홍하학원)	67
북중 국경무역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태황 교수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75
[Session 3] 농업협력	87
원난 농업의 특징, 현황 및 발전방향 Zhengbaohua 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89
중국 운남성 농업 현대화 방향과 시사점 이수형 박사 (경기연구원)	99
[Session 4] 보건의료 · 바이오 협력	115
한국-중국, 한국-원난성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협력방안 윤강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7
원난(云南) 중국 한방의약 산업발전 전망 Huqingzhong 연구원 (운남성 사회과학원)	133

[Session 1]

**일대일로구상을 활용한
한국·원난성 간 경제협력**

[발표 1]

일대일로와 원난성 발전방향

Liyanfeng 교수

원난재경대학교



대외정책포럼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원난성 발전방향

리옌펑(李严锋) 교수

2016. 8. 18 쿤밍(昆明)



강연자——리옌펑 교수



경영학 박사, 2급 교수
원난재경대학 물류학원 원장
원난재경대, 시난(西南)재경대
박사지도교수
원난성 우수 교수
중국물류학회 부회장
교육부 물류관리 및 공정류
전문교학지도위원회 위원
원난성 중청년학술기술 리더



CONTENTS 목차

- 1 원난 물류현황
- 2 13차 5개년 성장계획 및 목표
- 3 물류산업 공간 배치
- 4 10대 핵심 공정
- 5 세이프가드 조치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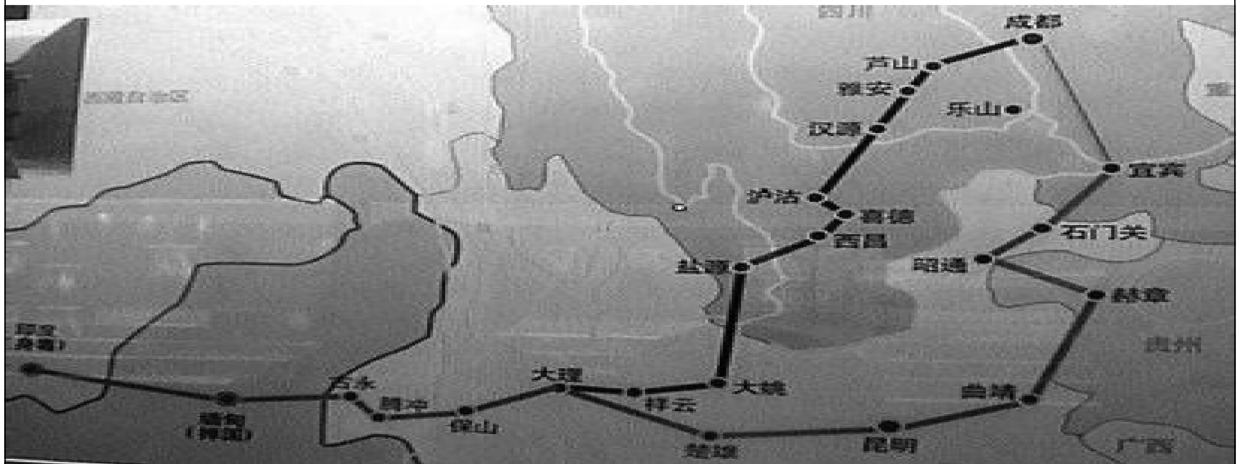
원난 물류현황

Yunnan logistics industry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faced



원난 물류의 역사: 남방 실크로드

현재 중국 쓰촨(四川)에서 시작해 원난을 거쳐 인도에 이르는 교역로로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서한(西汉) 시대에 이미 개발됐다. 쓰촨 이빈(宜宾)에서 시작해 야안(雅安), 루산(芦山), 시창(西昌), 판즈화(攀枝花)에서 원난의 자오통(昭通), 취징(曲靖), 다리(大理), 바오산(保山), 텅충(腾冲)을 거쳐 더홍(德宏)에서 국경을 넘어간다. 미얀마, 태국에 진입해 최종적으로 인도와 중동에 도착한다.




원난 물류의 역사: 남방 실크로드







원난 물류의 역사: 덴웨(滇越) 철도

북

중국

베트남

이량현 (宜良县)

거우계전 (狗街镇)

판시진 (盘溪镇)

카이위안시 (开远市)

거주시 (个旧市)

명즈현 (蒙自县)

뤄수이둥 (落水洞)

거구 (戈姑)

뤄구짜이 (保姑寨)


허커우진 (河口镇)

비서자이촌 (碧色寨村)

즈촌 (芷村)

런즈교 (人字桥)

뤄푸칭 (波渡箐)



원난 물류의 역사: 버마로드(滇缅公路)



2014. 12. 19

쿠닝

중국

원난성

미얀마

버마

甸

베트남

태국

베트남

마다반




윈난 물류의 역사: 버마로드




역사의 굽이길

24굽이



윈난 물류의 역사: 튀평 (驼峰) 항로



2차 대전 때 중국과 연합군에게 중요한 항로였으며, 1942년부터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 격퇴에 크게 기여했다. ‘튀평 항로’는 동쪽의 중국 쿤밍에서 서쪽의 인도 딘잔(Dinjan)까지로, 지형 해발고도는 약 4500~5500m 이상이며 최고 해발고도는 7000m 이상에 달한다. 산세가 끊임없이 기복을 이루는 것이 마치 낙타 등(驼峰)의 혹 같다 하여 “튀평 항로”라는 이름을 얻었다.

1942년 5월,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하면서 버마로드를 고립시켜 중국 육로 보급선이 끊겼다. 7월 미국 육군 항공팀은 항공 운송노선을 조직했다.

“튀평 항로”는 세계전쟁 항공운송 사상 지속시간이 가장 길며 조건이 가장 험난해 가장 큰 대가를 치뤄야 했던 항공 운송로이다. 3년간 중국 항공회사는 8만 회를 운행했으며, 미국군은 연이어 비행기 2100대를 투입했고 양측에서 총 8만 여 명이 참여, 85만톤의 전략물자, 3만 여명의 전투인력이 참여했다. 미군의 손실 비행기는 1500대 이상, 희생된 파일럿은 약 3000명으로 손실률이 80% 이상에 달한다.

International Trade & Logistics
12



성과

“ 12차 5개년 계획(2011~2015)” 기간 동안, 원난성은 물류산업발전을 중시해왔으며, “유통활성화 성(省)” 전략을 기반으로 과학적 기획과 자금 투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일련이 물류산업발전을 견인할 정책을 마련해 물류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물류산업
규모 급성장 ⑥

물류 연계
집중 추진 ⑥

기술장비
조건의 개선 ⑥

물류산업
주체 급성장 ⑥

기본적인
기간시설망
확보 ⑥



원난 물류의 강점: 담배 물류








주스젠(褚时健)과 리즈칭(励志橙)

褚时健, 曾是玉溪卷烟厂厂长, 一手创造了中国烟草业第一品牌——红塔山。2002年, 经历人生低谷后, 褚时健与妻子包荒山, 再创业。10年时间, 2400亩橙园结出累累硕果。
<http://club.baby.sina.com.cn/>



원난 물류의 강점: 물류 선도기업



원난물류산업그룹





昆钢王家湾




중국 2010년 상해엑스포 후원사 진위안(锦苑)


世博局 锦苑花卉


EXPO 2010 SHANGHAI CHINA






원난 물류의 강점: 원난 향촌 유통공정





쿤밍시 공급수매합작사



阳光政府

首页 | 公开目录 | 公开指南 | 公众监督 | 动态信息 | 通知公告 | 市场行情 | 供销社改革与发展

今天是: 2015年01月19日 星期一

您现在的位置: 首页 > 供销社改革与发展

展开基本信息

원난성 공급수매합작사 연속 5년 전국 1위

索引号: 330100-010589-20120121-0009 发布日期: 2012-01-21 10:21:18 [打印] [关闭]

全国供销社工作会议15日在京闭幕, 云南省供销社连续5年“夺冠”, 这是云南省供销社在全国连续5年名列第一, 这在全国供销社系统尚属首家。会上, 总结推广“云南模式”在全国供销社系统引起热烈反响。中华全国供销合作总社党组书记、理事会主任杨传堂在京听取了云南省供销社工作汇报后, 对云南省社工作给予充分肯定, 并批示: “云南模式”很有特点, 要认真总结和推广。

出处: 云南省供销社 发布人: 市供销社合作

시진핑 서기의 지침

공급수매합작사는 농촌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역량이다. 올해 중국 전국공급수매합작본사 설립 60주년이다. 지난 60년간 공급수매합작사는 당과 국가의 대업을 함께 수행하여 농업 농촌 발전, 상품공급 보장, 도농 서비스 등 부문에서 크게 기여했다. 전국 공급수매합작사에 중사하고 있는 간부 직원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표창을 받은 단체와 우수 인재에게 깊은 축하의 뜻을 전한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수매합작사를 건설하고 그 고유의 경쟁력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공급수매합작사의 개혁과 발전에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며, 공급수매합작사는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요와 도농 통합발전이 부합하는 동시에, 농민 생산력과 종합 경쟁력을 강화해 샤오강(小康)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习近平)



2014년 7월 12일


원난성 발전개혁위원회 원난성 공급수매합작사연합사 문건


云发改经资〔2010〕843号

**원난성 발전개혁위원회, 원난성
공급수매합작사연합사의 원난성 향촌 유통공정
건설계획에 관한 통지**

各州、市人民政府，省直各委、办、厅、局：
《云南省乡村流通工程建设规划》（2010-2015年）已经省人民政府同意。现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附件：云南省乡村流通工程建设规划（2010-2015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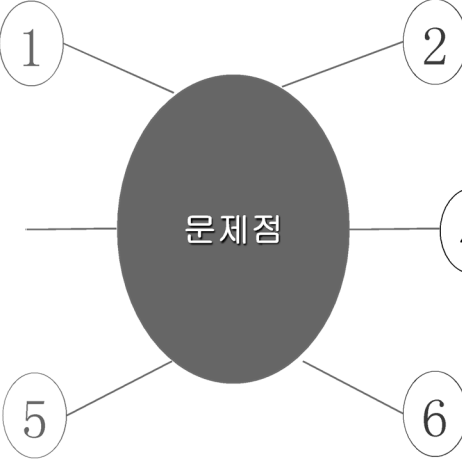


문제점

전체 산업 규모가 적고, 물류원가가 비교적 높으며, 효율성이 낮음

물류 선도기업이 부족하고, 물류 기업의 서비스 능력이 약함

물류업 종사자들의 업무자질이 보편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인재가 부족함




물류 기간설비망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고, 기획적 측면에서 물류단지가 합리적으로 조성되지 않음

전체 물류 정보화 수준과 자동화 장비의 활용 수준이 낮음.

물류업 발전을 저해하는 체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정책법규 체계와 통계제도가 미성숙함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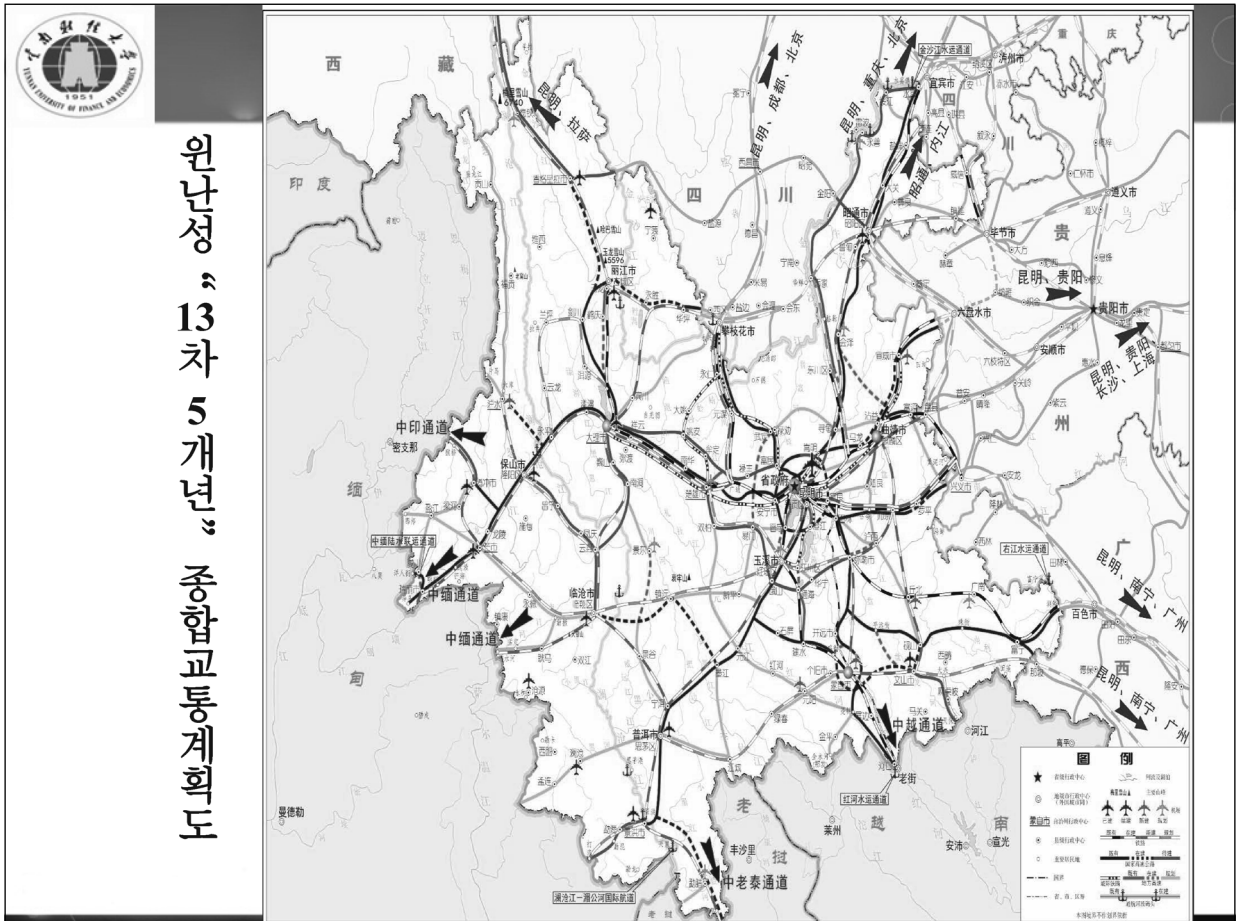
- 1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 경제회랑, 창장(长江)경제벨트 등 전략은 원난성 현대물류산업에 중요한 성장기회 제공
- 2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기간의 교통 운송 인프라시설 건설은 원난성 현대물류산업 발전에 광범위한 성장기회 제공
- 3

경제산업 발전은 원난성 현대물류산업의 탄탄한 기반 마련의 초석
- 4

공급측(supply side) 구조개혁과 사회환경 변화는 원난성 현대물류산업에 새로운 도전과제 부여



원난성 13차 5개년 종합교통계획도

원난성 종합교통건설의 비약적 발전

**"1166" 계획 시행,
"3322" 목표 달성**

"1166" 계획은 100개 주요 프로젝트 건설, 1조 위안 투자, "13차 5개년" 계획 6,000억 위안 투자, 성급(省級) 자금 6000억 위안 조달을 지칭함.

"3322" 목표는 주(州)/시(市)의 고속도로, 철도, 항공로 등 "3통(三通)", 현(縣, 50인 이상 경제 규모) 고속도로, 고품질 도로, 향촌(鄉村) 도로의 "3통", 주/시 고속철도, 현 고속도로의 "2통"를 구축하고, 원난의 비약적 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교통허브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2가지" 기간사업을 지칭함.



원난성 종합 교통 건설의 비약적 발전

- 2020년까지 철도 운행거리를 5000km까지 확장하기 위해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기간 동안 2000km를 늘려 원난 중부도시경제권에 “시시통(市市通)” 고속철도 시대를 열 계획이다.
- 고속도로망으로 모든 주(州), 시(市), 50만 명 이상의 현(縣) 및 원난 중부도시경제권을 커버하고, 고속도로 차량통행거리를 6000km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기간 동안 2000km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원난 중부도시경제권에 ‘현현통(縣縣通)’ 고속도로 시대를 열고 이를 원난성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20년까지 내륙수로 통행거리를 5000km까지 확장할 예정이며 그 중 3급 이상의 수로 통행거리는 600km까지, 신설 수로 통행거리는 800km로 계획하고 있다.
- 2020년까지 원난성에 민용 공항 수를 20개까지 늘리고 각종 범용 공항 50개를 신설하며 원난성에 항로 460라인 이상을 개통할 계획이다.



PART 02

원난성 13차 5개년 물류업의 성장비전 및 목표

13th Five-year Plan: position and development target



2.1 성장비전



원난성을 중국 남서 물류센터,
농특산품 거래 물류센터,
남아시아-동남아시아-인도양
국제물류센터로 건설해
원난성을 비롯한 중국 대륙과
남아시아-동남아시아-인도양을
연결하는 국제물류허브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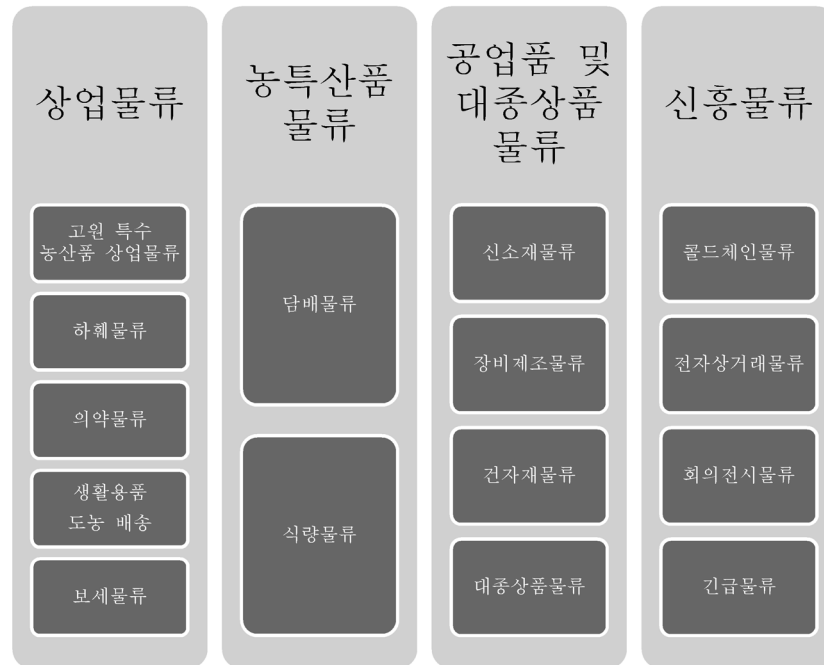


2.2 성장목표

현대물류산업을 원난성 지주산업으로 육성해 **2017**년까지
원난성의 사회적 물류 총액을 **6조3,000**억 위안으로,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1,4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0년 원난성의 사회적 물류 총액은 **9조4,000**억 위안으로
연간 성장률이 **14%**,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는 **2,000**억 위안으로
연간 성장률이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전문적 물류 성장포인트 마련



2.4 10대 성장미션

- (一) 공간배치 최적화, 물류 네트워크 개선
- (二) 물류 전문성 강화, 산업 고도화 지원
- (三) 지역별 경쟁력 활용, 국제 물류 역량 강화
- (四) 선도 기업 육성, 산업 규모 확대

- (五) '인터넷플러스' 정책 추진, 스마트 물류 기반 구축
- (六) 도농 물류 통합 기획, 조화로운 성장 촉진
- (七)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녹색 물류 환경 조성
- (八) 성장 기반 강화, 서비스 능력 향상



PART
03

물류산업의 공간배치

Logistics industry spatial layout



물류 전체 공간 구조

원난성 물류 전체 공간 구조도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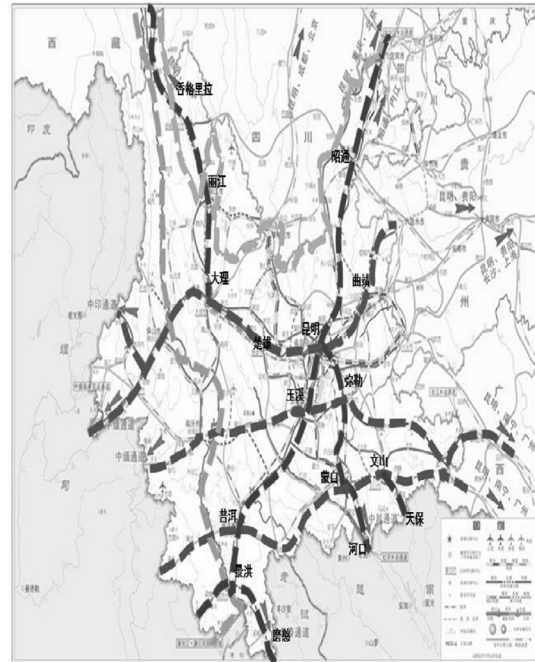
원난성 경제사회의
성장법칙을 준수하고,
"원난성 강화, 변두리
발전, 전국 연동, 산업
지탱"의 성장 이념에
따라 "**1핵(一核),**
4대(四帶), 6구(六區)"의
물류 전체 공간 구도를
형성





원난성 물류루트 전체 구도 (2016-2020)

"도로, 수로, 철로, 항공로,
관로"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사종사횡(四縱四橫)"의
입체적 물류루트 체계를
형성



PART 04

10대 핵심 공정 실시

Major project



4.1 핵심 물류단지 건설 공정

핵심 물류단지 건설 공정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 물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물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물류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유도한다. 녹색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화물허브형, 생산서비스형, 상업서비스형 및 항구서비스형 물류단지 및 농업특산품, 바이오의약, 담배, 제조장비, 신소재, 전자재, 콜드체인, 특급배송, 전자상거래, 보세 등 전문적 물류단지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2020년까지 35개의 핵심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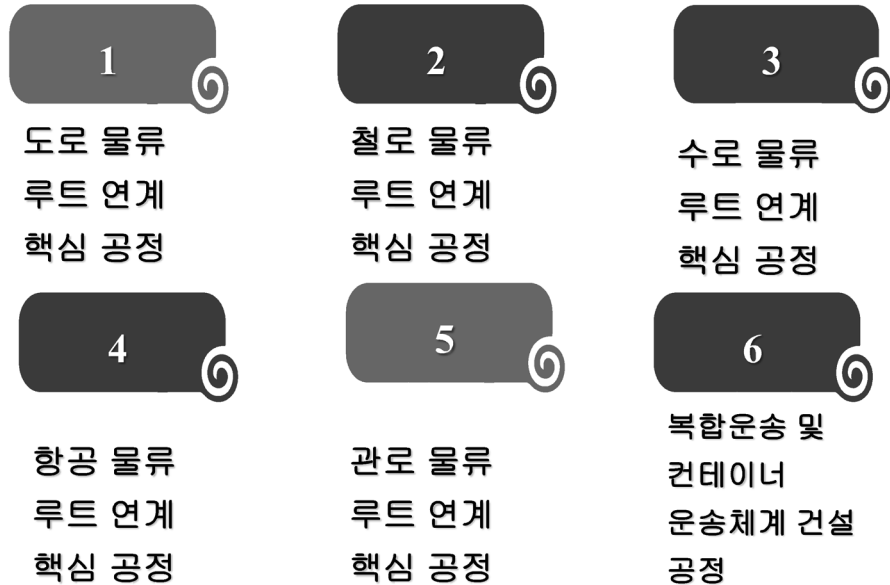


4.2 주요 물류루트 연계 공정

"사종사횡(四縱四橫)" 입체적 물류 루트를 구축합니다. 물류 루트에서 취약한 구간을 보완해 기존 물류 루트를 강화함으로써 각 주(州)/시(市) 간의 연계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기존 교통 운송 인프라 시설을 기반으로 핵심 물류 루트 연결지점에 복합 운송 시설을 건설해 육해공 종합 교통운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4.2 주요 물류루트 연계 공정



4.3 농업특산물 물류 시범공정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존 핵심 물류센터의
정보화 및 검측검열 수준을 향상시키며, 물류센터 창고,
운송 및 가공 등 인프라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야크 고기, 유제품, 커피, 사탕수수, 야생식용균, 고무, 삼칠
등 농산물 중심의 콜드체인 물류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 농산물 도매거래시장과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신선한 농산물의 예비냉동, 초기가공, 냉장,
신선유지 등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녹색 친환경 냉장차의 구매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선진 콜드체인 설비와 기술 응용을 활성화시켜
농산물 콜드체인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4 제조업 물류업 연동 공정

제조업과 연계되는 공급체인

물류체계와 현대 물류체계 건설을
가속화해 제조업과 물류업 간 고도의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한다.



4.5 전자상거래 물류 공정

"인터넷플러스"와 의약, 농산품 등 산업의 심도 있는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상업유통기업의 전자상거래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물류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각 산업별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O2O 산업 발전을 유도. 택배업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해 농촌에는 공산품을, 도시에는
농산품을 공급한다.

도시 택배업 교통운송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도시 택배차량 표준과
식별을 통합함으로써 택배차량의 지역 통행, 정거, 하역 작업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전동 또는 하이브리드 동력 기반의 택배차량을
보급해 녹색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택배기업과 전자상거래기업 간 유기적 협업을
장려하고, 택배기업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지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 원활한 배송 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킨다.



4.6 국제 물류 고도화 공정

허브항만, 공항, 철로, 도로 등 각종 항구 물류 인프라 시설
건설을 가속화한다.



변두리 항구 물류 인프라 시설 건설을 가속화한다.

쿤밍(昆明), 홍허(红河), 뤼리(瑞丽), 모한(磨憨) 등지의 보세
물류 성장을 가속화하고, 세관구역 통관 범위를 확대한다.



항구 물류 검사연동 매커니즘 구축하고 전면적인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개설해 "사전 검역신고, 사전 통관신고, 화물도착
검사통과, 전자 통과허가"의 통관업무 방식을 실시해 통관
효율성을 제고한다.

조건을 갖춘 물류기업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국가에 물류 사무소 또는 해외창고를 설립해
국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7 스마트 물류도시 시범 공정



정보화 기술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자원, 제품, 기업,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배송,
운송, 관리 및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상업류,
자금류, 정보류, 물류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가치 있는 물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쿤밍시에서 20개의 A급 이상 물류기업을 스마트 물류
육성기업으로 선정하고, "인터넷플러스", 베이더우
내비케이션(北斗导航),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을 제품 추적,
온라인 진도 관리, 전자동 물류 배송, 스마트 배송, 전체
과정 모니터링 추적 등 분야에 활용한다.



4.8 물류 정보플랫폼 건설 공정



구역 및 업계의 전문화된 물류 정보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해 물류 정보 자원 교류를 촉진시킨다.

물류 공공 정보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해 전 사회적 물류 정보 자원을 적극 개발 및 이용하고 재고 모니터링, 운동 탑재, 이력 추적 등 물류 정보플랫폼 발전을 지원하며, 원난성 화물차 농산품무역 통합 정보 거래플랫폼과 "물류 클라우드" 물류 종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건설해 농업 특산품 물류 발전에 이바지한다.



물류 정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신용, 네트워크 감독, 긴급 대응, 정보 안전 평가, 재난복구의 안전 인프라 방지 및 보호와 보장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한다.



4.9 선도적 물류기업 육성 공정



집중적인 우대 정책을 제정해 유명 물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현지 물류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현지의 선도적 물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현지 물류기업 합병 및 구조개편에 대한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선도적 물류기업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500대 기업, 중국 500대 기업 및 중국 50대 물류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물류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국내 물류 대기업과 글로벌 물류회사가 원난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도록 장려해 국내외 물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난성의 물류 산업 발전을 견인하도록 유도한다.



4.10 물류 표준화 응용 활성화 공정



설비 표준화를 통해 하역 운반 및 운송 과정에서 설비의 범용성과 호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적재 및 운송 도구와 하역 기계를 설계. 기업의 보관 및 운반 비용을 절감시켜 물류 운영 효율성 및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촉진시킨다.
정보 표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 통용이 가능한 현대물류 정보표준을 제정한다.



중앙정부의 관련 표준 시행을 앞당기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관련 표준 제정을 가속화한다.

표준화된 운영을 장려하고 우수기업의 운영방안을 종합 및 개선해 원난성 내에서 활성화시키고, 이를 일반화해 관련 부속시설 설비의 표준화 개조를 촉진해 원난성의 물류 운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PART 05

세이프가드 조치

Safeguard measures



세이프가드 조치

1

건전한 협조
메커니즘 구축,
기획 실시 보장

2

물류 정책체계
구축, 지원
역량 확대

3

물류 성장환경
개선, 신의성실
기반 건설문화
강화

4

물류 서비스
체계 최적화,
관리 수준 개선



감사합니다!

[발표 2]

일대일로전략과 한·원난성 물류분야 협력방안

이주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대일로전략과 한·원난성 물류분야 협력방안

2016. 8.18.

이 주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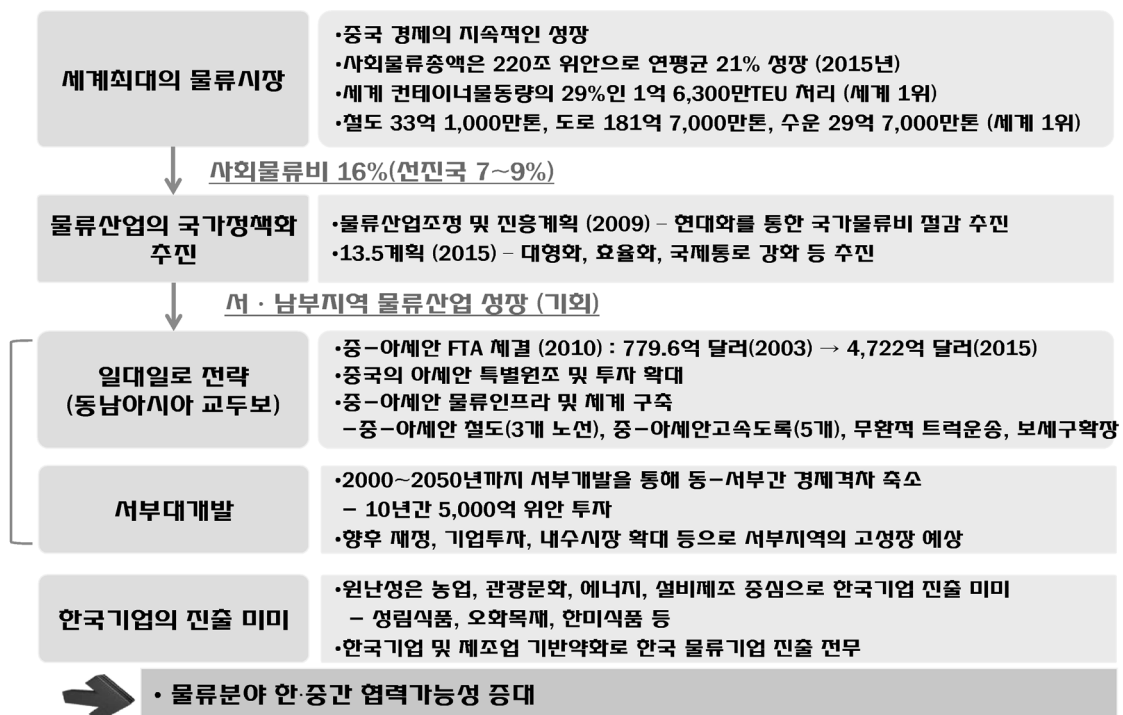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tents

-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 서·남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 서·남부지역 SWOT 분석
- 물류분야 협력사업
- 진출 제안사항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한·원난성 협력 필요성



2. 중-동남아시아 교역현황

-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액은 2003년 780억 달러에서 2015년 4,722 달러로 6배 성장
 - ✓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 ✓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 싱가포르는 중국의 최대 수출국, 말레이시아는 최대 수입국
 - ✓ 수출 품목으로는 방직품, 의류, 면직물, 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방직품
- 중국의 동남아시아 7개국에 대한 수출 상품의 범위와 종류는 매우 넓고 다양
 - ✓ 상위 5개 품목은 철강, 철강제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선박
- 동남아시아 대(對)중국 수출상품은 주로 에너지, 광산물 및 1차 가공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 상위 5개 품목은 동식물류, 광물연료, 고무 및 관련제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4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3.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경제

중-아세안 FTA 체결

- 체결일자 : 2010년 1월 1일
- 대상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10개국
- 시장규모 : 인구 20억, 무역총액 6조 달러, GDP 9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시장
- 협정 내용 : 7,445개의 품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 및 폐지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태국 · 싱가포르 · 브루나이 등 선발 6개국은 2010년까지 중국과 완전 무관세를 실현하고,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남 등 후발 4개국은 5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2015년까지 무관세를 실현

메콩지역개발 협력 참여

- 설립일 및 주도기관: 1997년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 2002년 정식 운영
 - ✓ 최근 부장급회의, 고관회의, 산업협조 위원회 및 지역공업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협력협조 메커니즘을 구축
- 주요목적: 중앙아시아의 경제 발전 촉진
- 협력중점사항: 4대분야 협력주진 - 교통, 에너지, 무역편리화 및 무역정책 등

5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3.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경제

원난성- 동남아시아 협력체계 구축

- 원난-태국북부지역 업무팀체제 (2004년)
 - ✓ 무역촉진, 무역행사 장려, 협력강화, 태국 북부 물류인프라 건설
- 중국 원난-베트남 5개주·시 경제협상회의 협력체계 (2004년)
 - ✓ '2회랑 1권역' 협력, 무역촉진
- 중국 원난-라오스 북부지역업무팀 협력체계 (2004년)
 - ✓ 라오스에 대한 투자 확대, 농업협력, 마약대체작물 재배 지원
- 원난 - 미얀마 상무포럼 (2007년)
 - ✓ 포럼상설기구 건립, 상무정보교류 강화, 사업개발기구 건립, 기업상호방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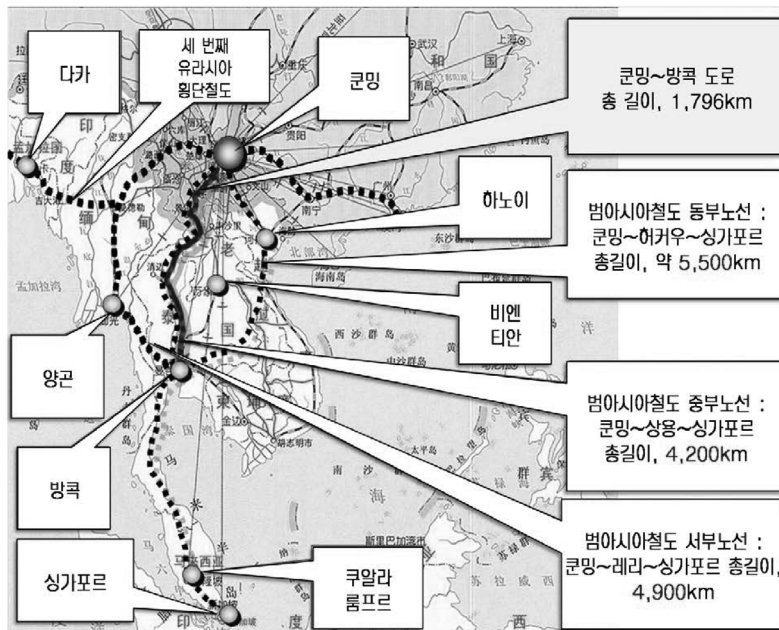
6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 물류인프라(철도)

중-동남아시아 물류통로(철도)

- ♦ 동쪽노선은 쿤밍을 시작으로 위시(玉溪)~멍쯔(蒙自)~허커우(河口)를 통과해 베트남
 - ✓ 위명(玉蒙)철도는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2013.2)
- ♦ 중심노선은 원난성의 쿤밍~위시~푸얼(普洱)~징홍(景洪)~모한(磨憨) 라오스, 미얀마
 - ✓ 2015년
- ♦ 서쪽노선은 쿤밍~다리~바오산~루이리(瑞丽)~팅충(腾冲)을 거쳐 미얀마 카친주의 미치나시까지 연결
 - ✓ 2015년
- ♦ 중국-싱가포르: 1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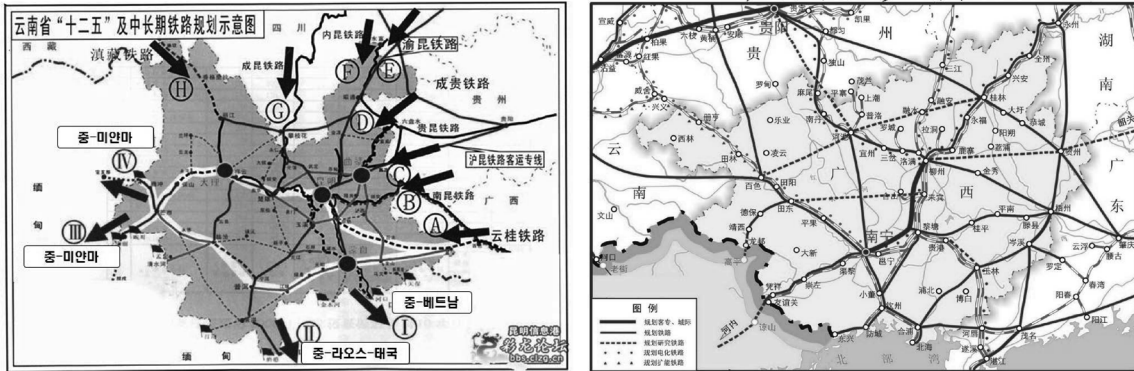
7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 물류인프라(철도)

- 원난성은 국제철도 대통로 건설을 위해 ‘8입성 4출경’ 철도건설 추진
 ✓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철도의 연결구간 신설 및 확장 추진
- 광시자치구는 난닝을 중심으로 대량화물운송망 등 총 5,000km의 신규 건설 추진

동남아시아 물류통로의 중국 내 노선 건설 및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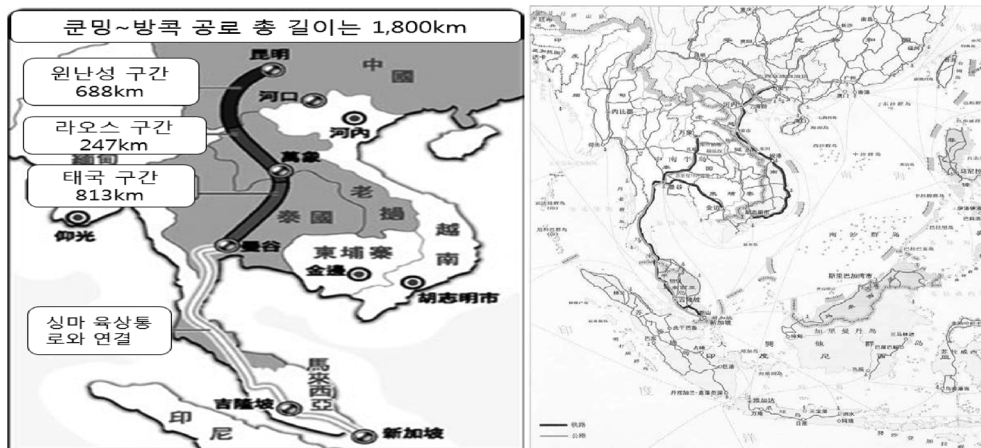
8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 물류인프라(고속도로)

- 쿤밍~방콕 고속도로 건설
 ✓ 중국에서 라오스 구간 공사비용 40억 달러 모두 부담
- 베트남~난닝~선전 고속도로 완공 (2012.8)

중-동남아시아 물류통로(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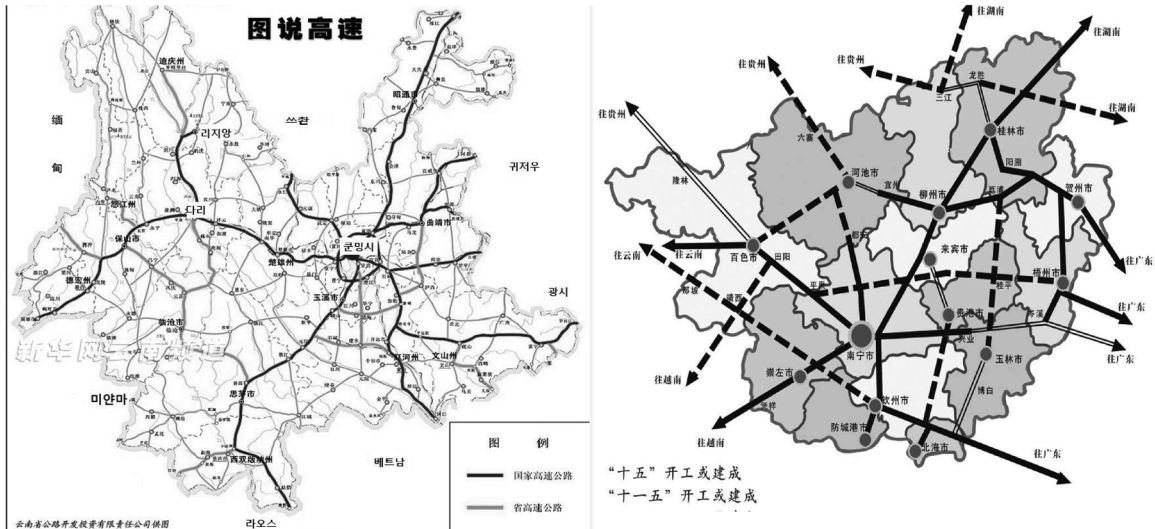


9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 물류인프라(고속도로)

- 윈난성은 동남아시아와 연결 고속도로의 주요 연결 구간 7개 확장 공사
 - ✓ 동남아시아와 연결도로 17개
- 광시자치구는 2015년까지 4,660km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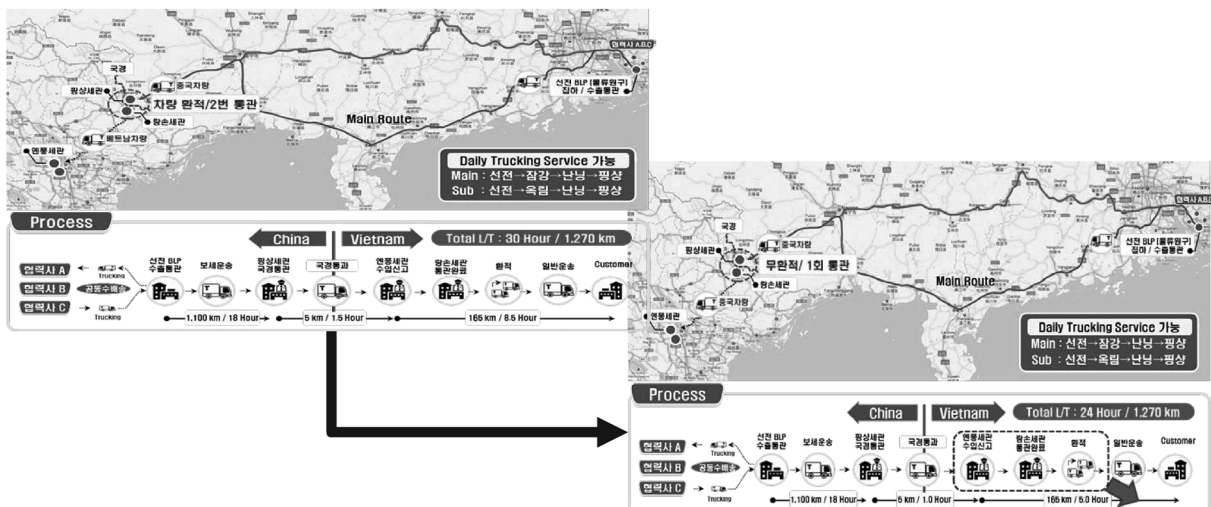


10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 물류인프라(무환적 차량)

- 중, 베트남 차량은 선전~베트남 하노이까지 직통운송 가능
 - ✓ 차량의 교환없이 1회 통관으로 운송가능
 - ✓ 운송시간 기존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
 - ✓ 2013년 6월 18일, 직통운송 차량대수 500대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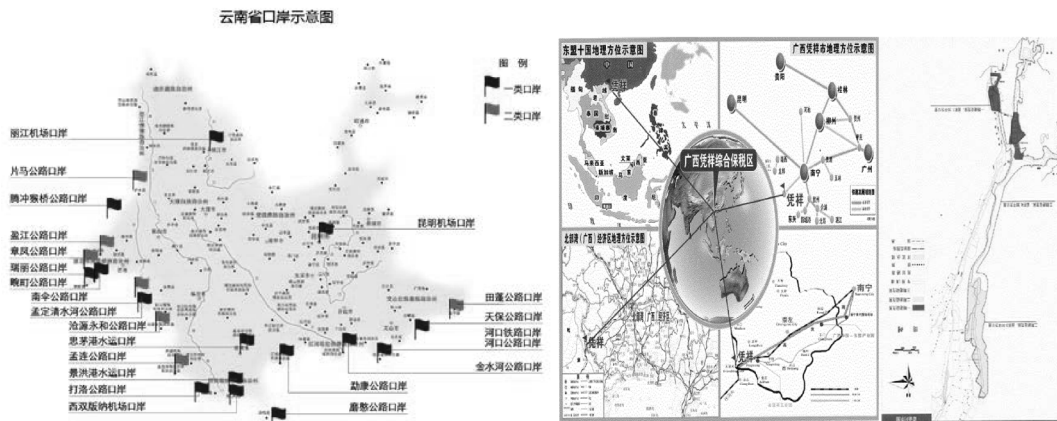


11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 물류인프라(통상구/보세구 확장)

- 원난성은 동남아시아 변경통상구 건설 및 확장 추진
 - ✓ 1급 통상구 16, 2급 통상구 7
 - ✓ 변경경제합작구, 과경경제협력구, 중점개발개방시험구 건설 추진
 - ✓ 중점개발개방시
- 광시자치구는 평상지역에 평상종합보세구 설립(2011.9)
 - ✓ 1단계 10억위안 투자, 2단계 공사 중(재가공, 물류창고)
 - ✓ 중국, 베트남 지역에 같은 면적의 보세구 설립 추진



12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 물류인프라(통상구/보세구 확장)

원난상창정(星长征)국제비즈니스
센터 건설

- 2010년 4월 건설 시작
- 아시아와 원난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인접하고 외 기타지역을 잇는 교통핵심지역에 위치
-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교역 및 물류 지원
- 중국태국쿤밍 농수산물 물류정보항과 라오스비즈니스물류센터가 입주
 - 태국의 열대과일과 수산물, 원난의 열대 과일과 채소 등 특산품에 대해 창고, 교역, 물류운수, 배송 및 금융 등의 복합 물류 업무
 - 라오스비즈니스물류센터는 라오스 상품에 대해 창고, 전시, 교역, 전자비즈니스, 운송, 배송, 금융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

보세물류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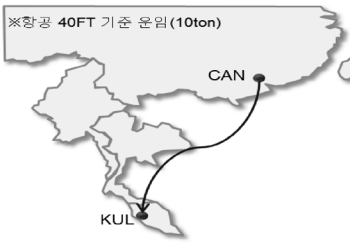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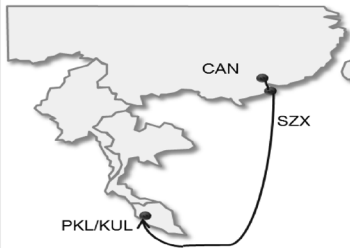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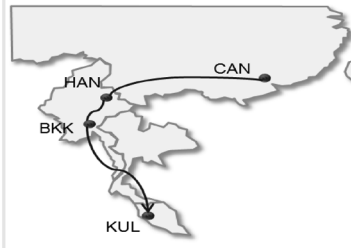
- 중징, 정두, 난닝 등 보세구 활성화
- 기존 장강 및 해운에서 쿤밍을 중심으로 한 육상운송으로 전환 (70% 시간 단축 가능)
-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제품의 교역시장 형성 추진
- 특히 중징시는 “내륙소비형자유무역구역”으로 세계 각국의 화물을 면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향후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13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 물류분야 영향

- 동남아시아 연결 고속도로를 이용한 육상운송 증가
 - ✓ 제조공장의 동남아시아 이전으로 부품, 완제품 등의 화물량 증가
 - ✓ 항공에 비해 저렴, 해상에 비해 정시성 높음

※항공 40FT 기준 운임 (10ton) 					
Free quency	Daily	Free quency	THU / SAT	Free quency	Daily
Total L/T	4days	Total L/T	11days	Total L/T	7days
Logistic cost	\$ 29,000	Logistic cost	\$ 2,200	Logistic cost	\$ 11,000
항공		해상		도로	
-화단기간 납기 가능		-저렴한 운임		-해상운송 대비 L/T 3~7일 납기단축	
-Daily 선적가능, 유동적 납기 대응 가능		-대량 운송시 안정적인 납기 가능		-항공운송 대비 운송료 최대 62% 절감 가능	
-타 운송모드 대비 상대적 고가의 운임		-Daily 양자 부재로 인한 출하 일차 대비 L/T 차이 발생 (L/T: Min~Max / 11~14days)		-국가간 국경 CNTRT/S 필요(3차례)	
-대량 운송시 분할 선적 필요		-선북 집중 시 Space guaranty 불가		-장거리 운송 도로 및 외부요인에 대한 손상발생 가능성 높음	
		-해상 기후에 따른 선박일정 변동 발생 가능성 높음			

14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5.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계획 및 전망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전망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로 영향력 확대

교역규모 확대 및 관광객 증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투자액 증가

동남아 물류인프라건설에 중국의 적극적 참여

위안화의 국제화 촉진

경제회랑 건설로 지역협력 촉진

농수산업 협력 강화

15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서 · 남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원난성 물류현황

- 원난성은 성 전체적으로 ‘성내 7개노선, 국외 4개노선(七八城四出竟)’ 중심의 도로 기반을 형성할 계획으로 국제노선으로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를 연결할 예정임
- 물류산업은 정보화, 현대화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이며 서부대개발과 교두보 건설의 확대에 따라 원난성의 교통 및 물류 산업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도로

- 도로연장주이(2011년): 214,524KM
- ✓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4.2%로 낮은 수치임
- ✓ 화물운송량: 63,200만 톤, 화물운송회전량: 702.5억 톤-KM (2012년)
- 도로연장 주이는 낮지만 교통운수, 3차 물류, 창고 등을 바탕으로 물류업이 발전하고 있음

철도

- 철도연장주이(2011년): 2,491.3KM
- ✓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1%
- ✓ 철도화물운송량(2012년): 6,300만 톤
- 12.5 기간 동안 원난성의 철도 인프라 건설은 더욱 가속화 되어 향후 선진 물류체계 구축 기대

항공

- 현재 공항 수: 13개
- ✓ 2020년까지 21개 공항을 신설할
- ✓ 주요공항: 계획임우자빠국제공항, 더홍망공항, 다리공항, 바오산공항, 린창공항, 상그리라공, 시창반나공항, 스마오공항 등

1. 윈난성 물류계획

- 내부로는 중서부 지역의 각 성시,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를 연계하고, 외부로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연계하는 국제 상품무역 대동로, 중국~미얀마, 중국~라오스, 중국~베트남의 3개 변경 무역체계를 구축 계획 (도로: 쿤밍~방콕 고속도로, 철도: 판야고속철도 (泛亚高铁) 동, 서, 중부 총 3구간)
- 현대물류업 가속 발전 계획 중 산업기지, 단지와 교통허브를 이용하고 전문시장, 전문물류중심 및 대형 종합물류단지를 건설하여 고효율 물류서비스 제공 목표

물류단지 및 센터 구축

- 쿤밍(昆明) 국제물류센터와 허브
- 취징(曲靖), 홍허(红河), 자우통(昭通), 다리(大理) 지역적 물류센터
- 위시(玉溪), 추시웅(楚雄), 바우산(保山), 더홍(德宏), 시상반나(西双版纳), 원산(文山), 푸얼(普洱), 린창(临沧), 리강(丽江) 등 물류거점과 종합물류단지 건설 예정

보세물류단지 건설

- 쉬푸(水富), 푸닝(富宁), 징홍(景洪) 등 국가급 통상구에 보세물류단지 건설
- 허커우(河口), 모한(磨憨), 뤼리(瑞丽), 멩딩청쉬허(孟定清水河), 덩충하우차우(腾冲猴桥), 마리포텐바우(麻栗坡天保), 멩롄멍아(孟连勐阿), 루쉬피안마(泸水片马) 등 통상구에 보세물류단지 건설 예정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1. 윈난성 물류계획

- 철도
 - 성내 8개 노선, 국외 4개 노선(八入滇, 四出境) 건설 추진
 - 2014년 베트남을 잇는 첫 노선이 개통
- 도로
 - 윈난성은 성 전체적으로 '성내 7개 노선, 국외 4개 노선(七八城, 四出境)' 중심의 도로 기반을 형성할 계획 (국제도로 4개 노선: 쿤밍~태국 방콕, 쿤밍~베트남 하노이, 쿤밍~미얀마 양곤, 쿤밍~인도 리도)
 - 연결되는 성내 7개 노선 건설 및 확장

고속도로계획도



철도계획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2. 광시자치구 물류현황

- 아세안국가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남지역 중 가장 편리한 출해구와 대외개방 창구를 보유함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가 건설되면서 베이부완 경제협력 및 광시 베이부완경제구의 개방 및 개발이 국가전략으로 부상하게 되어 3자 물류기업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연장주이(2011년): 10만 4,889KM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9.2%) ✓ 화물운송량: 16억 1,367만 톤, 화물운송회전량: 4,110.6억 톤-KM (2011년) ▪ 2013년 기준으로 총 16개 구간의 고속도로가 건설됨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연장주이(2011년): 3,194.2KM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2.6%) ✓ 주요고속철도: 광시연해고속철도, 난광철도 난닝~리탕 구간 등 7개노선 건설예정 ✓ 철도화물운송량(2011년): 6,670만 톤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공항 수: 5개 ✓ 주요공항: 난닝우쉬공항(南宁吴圩机场)- 전국 화물물동량 29위 ▪ 2020년까지 광시중남지역에 14개의 공항을 신설하여 총 39개의 공항을 운영할 계획이며 난닝우쉬공항 확장하여 항공여객을 구축할 계획임
해운/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수로연장주이(2011년): 5,433KM ✓ 화물물동량(2012년): 1억 4,904만 톤 ✓ 2015년 말까지 내하항만의 화물통과능력이 연간 1.5억 톤 이상을 처리하도록 정비계획

2. 광시자치구 물류계획

- '12·5' 기간 과학발전과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과 '주민부유, 광시진흥(富民强桂)' 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함
- ✓ 현대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ASEAN과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수출물류 통로, 물류시설 및 구역적인 물류기지를 건설
- ✓ 2구1대(两区一带)로 베이부만경제구와, 귀시우세자원구,시강경제구를 위주로한 구역경제를 발전시켜 구역간 조정발전을 실현할 계획임



2. 광시자치구 물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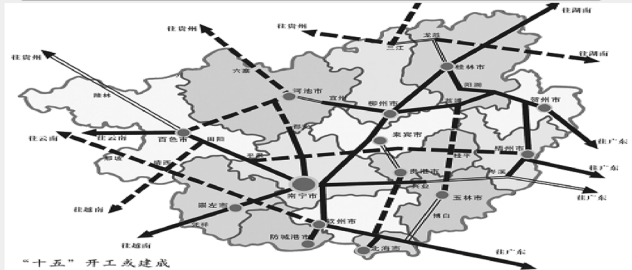
◦ 철도

- 난닝 허브를 중심으로 패속여객운송망과 대형화물운송망을 구축
- 주강삼각주 경제발달지역과 서북/화북/서남 지역으로 대형 패속철도통로를 건설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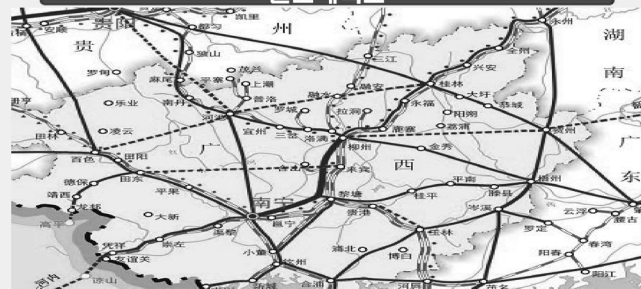
◦ 도로

- 2015년까지 수출통로 구축과 국가급, 성급 간선도로 보수 프로젝트 총 43개
- 건설 도로 총 길이 4,660km

고속도로계획도



철도계획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서남부지역 물류산업 SWOT 분석

1. 원난성 물류산업 SWOT 분석

- 중국서부대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투자 지속
- 국경 경제협력구 건설 및 대외 운송 통로 건설 가속화
- 도시 경제발전 기초 및 인프라 시설 취약
- 장기간 투자 필요 및 지역 물류기업의 성장

원난성 물류산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장점(중국 서남쪽 변경지역) - 물류수요의 동반 성장 - 다양한 물류기업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발전의 기초 및 인프라 취약 - 국경개방 산업의 물류 인프라 부족 - 기존의 국경개방정책 퇴화 - 합작가능 물류기업 부족 - 대영화주 및 한국화주 부족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단계 - 쿤밍-방콕 고속도로 연결 - 쿤밍-동남아시아 국제철도 건설 - 변경무역 인프라 건설 및 확장 - 연계발전과 물류업 지역화 추진 - 현대화 물류시스템 구축 - 대외개방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투자 필요 - 지역 물류기업의 강세

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2. 광시자치구 물류산업 SWOT 분석

- 동남아시아와 인접해 있는 뛰어난 지리적 위치와 높은 물류발전 잠재력
- ASEAN과 무환적 트럭운송 및 평상 종합보세구 확장 등 협력 강화
- 한국물류기업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부족
- 범북부만지역의 경제협력 실현의 불투명성

광시자치구 물류산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 - 광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 서남부 유일의 해양 항만 보유 - 베트남 변경 무역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생산력 및 정보화 부족 -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부족 - 낮은 국제무역 상품 경쟁력 - 한국 물류기업 부족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산업의 규모의 지속적 확대 - 물류인프라시설의 개선 - 산업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발 - 전문화 물류기업의 등장 - 무환적 트럭 운송 시작 - 평상 종합보세구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북부만지역의 경제협력 실현의 불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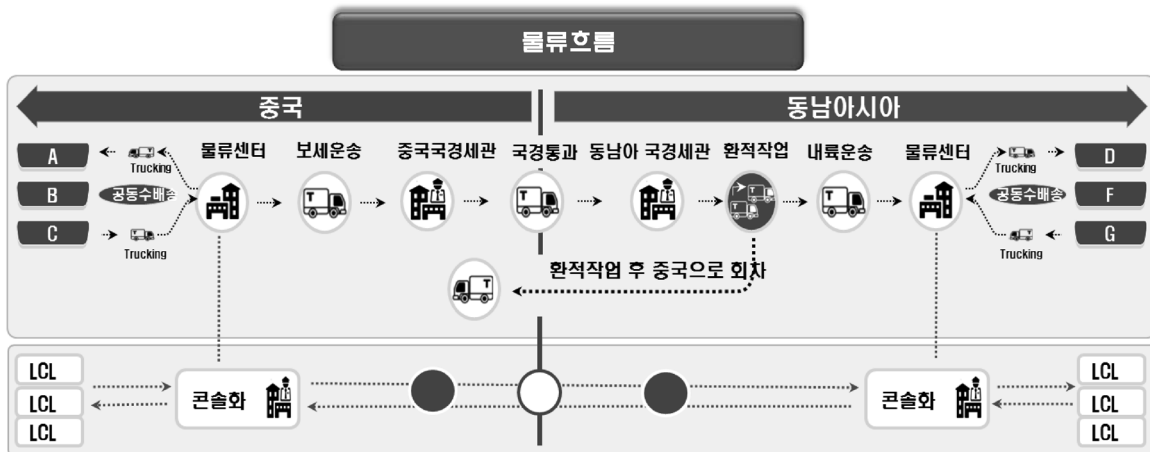
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분야 협력사업

1. 물류센터 운영사업

-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육상화물의 종류와 물동량 증가를 활용한 물류사업
 - ✓ 현재 특정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화물/화주 한정)
 - ✓ 제조기업의 동남아시아 이전, 경제수준 향상, 관세철폐로 교역품역 다양 및 증가
 - ✓ 향후에는 다수의 화주의 다양한 품목을 중국 혹은 동남아시아의 특정 물류센터에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콘솔화) 이송한 후 상대국의 물류센터에서 컨테이너의 화물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분배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1. 물류센터 운영사업

- 유망 지역으로는 원난성 쿤밍, 허커우, 광시자치구 핑샹, 광둥성 선전 등 4곳
 - ✓ 허커우, 핑샹지역은 국경지역으로 종합보세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물류단지 건설 중
 - ✓ 쿤밍지역은 원난성, 쓰촨성의 통합물류단지로 활용 가능
 - ✓ 선전지역은 남부지역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중, 북부까지 운송가능

유망 지역



28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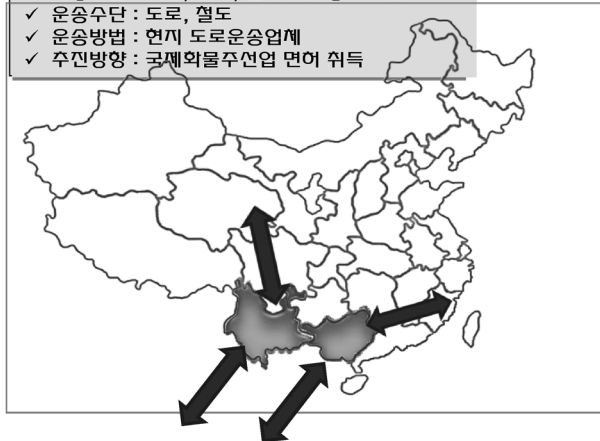
2. 국제포워딩 물류사업

- 동남아시아와의 변경무역, 한-동남아시아 국제무역 지원을 위한 국제포워딩 사업
 - ✓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과 동남아시아의 중국, 한국과의 교역량 증대
 - ✓ 국제화물주산업 면허 취득 추진
 - ✓ 중국 및 한국 내 화주와 현지 영업력 강화

대상지역

- ✓ 물류담당 분공사/대표자 설립
- ✓ 국제화물주산업 면허 취득
- ✓ 국제화물 확보 영업력 강화
- ✓ 도로, 대형물류기업 협력 강화
- ✓ 필요시설 투자 추진

- ✓ 타켓기업 : 동남아시아 수출입 기업
- ✓ 대상제품 : 의류, 잡화, 전자제품 등 소비품
- ✓ 운송수단 : 도로, 철도
- ✓ 운송방법 : 현지 도로운송업체
- ✓ 추진방향 : 국제화물주산업 면허 취득



제조업 지역

소비자 세부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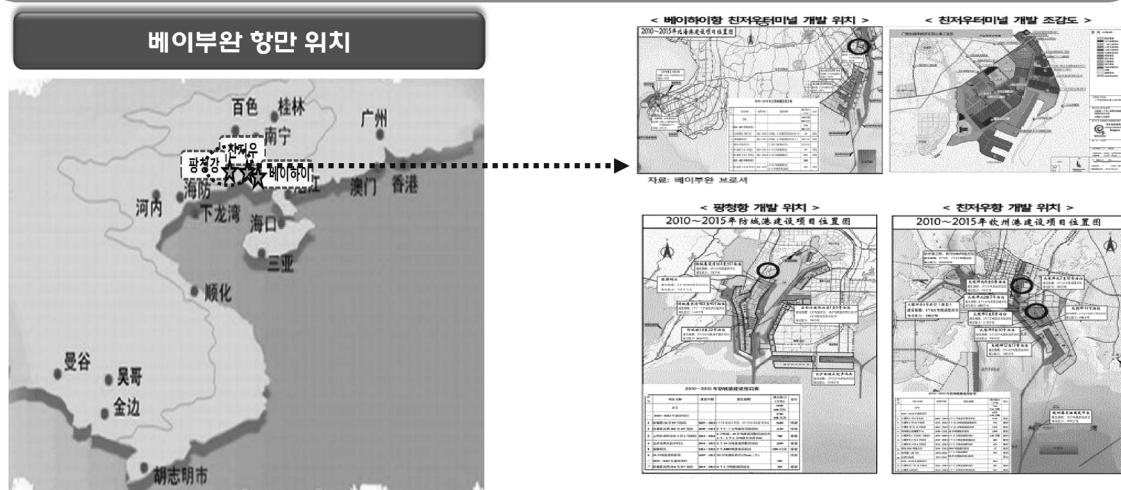
- ✓ 동남아시아/중국 소비재 수출기업에 마케팅 강화
- ✓ 물량 확보직원 인센티브 제공

29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3.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

- 동남아시아 해상운송의 허브, 대규모 항만시설 건설 등을 활용한 부두운영 사업
 - ✓ 베이부완 항만개발 및 활성화는 중국 중앙정부 및 광시자치구 정부의 최우선 과제
 - ✓ 급증하는 항만물동량 : 3,000만톤(2005)→ 1억톤(2010) → 2억톤(2020)
 - ✓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에 비해 컨테이너 부두 부족 : 적극적인 외자유치
 - ✓ 운영수익 및 물류거점 육성 유리



30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진출 제안사항

1. 정부 지원사항

한중 물류협력위원회 설립

- 한중 물류협력의 기획, 조직, 운영, 지원 등을 하는 전문 관리 기구 설립
 - ✓ 해운, 항만, 철도, 도로 등 각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 총괄
 - ✓ 민간차원의 물류효율화 추진 및 촉진
 - ✓ 한중간 물류분야 이슈 협의 및 추진
- 산학연정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
 - ✓ 각 분야별 정책담당자, 관련협회, 연구기관 및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공동위원회 등을 산하에 설치
 - ✓ 현안분석과 물류관련 산업통계 및 정보교류 활성화
 - ✓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물류관련 연구기능 및 정보제공 채널 통합

물류장벽 점진적 해소 추진

- 한중간 항로 자유화 추진
- 한중간 상생 물류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
- 물류표준화 추진

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1. 정부 지원사항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한제도 개선 추진

- WTO에 의해 개방되지 않았거나 개방되었어도 현실적으로 참여 불가능한 규제 개선
 - ✓ 높은 이익율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분제한, 경영권 미허용, 개방되었으나 현실적 참여 불가능한 조항들 중국측 제도 개선 요구
- 중국은 3자물류서비스에 대한 통합면허 부재,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
 - ✓ 3자 물류를 위해 도로, 항공, 운송 면허, 창고, ODCY, 하역, 가공, 포장, 배송, 대리 등 각 면허 취득 필요
 - ✓ 3자물류 통합면허 신설 및 한중간 통합면허 상호인증제 도입 필요

구분	내용	개선사항
지분취득 제한	항공화물 1급대리 선박대리업(워핑에이전트) 컨테이너 CY 운영 도로여객운수 철도여객운송 물류IT서비스	지분제한 및 경영권제한 개선
면허발급 제한 (잠금)	철도화물 1급대리 항공화물 1급대리 택배서비스 전문통관서비스	3항의 고정적인 물동량 확보 2항의 경영관리책임자는 공공항공운수기업의 관리능력 구비 “우정법”에 의해 2kg이상 소포와 중량화물만 가능 3항의 건전한 조직기구와 재무관리제도

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1. 정부 지원사항

물류기업 해외지사화 진출 지원제도

- 일본의 해외동반 진출사례와 코트라 해외지사화 제도의 물류기업 적용 추진
 - ✓ 코트라는 세계 76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 무역투자관련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업무 수행
 - ✓ 이 제도를 물류기업에 활용하여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추진
 - ✓ 해외 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이 주요 대상

해외 공동물류센터 신설 및 확장

-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확대
 -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물류공동화 및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센터 확장 필요
 - ✓ 화주기업 중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프로그램(KOTRA)와 연계하여 필요 지역 신설 및 확장 추진 필요

34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1. 정부 지원사항

해외투자자금 조달 금리 우대

-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시 자체자본금 또는 은행대출을 활용하나, 은행대출 활용 시 높은 금리에 애로사항이 발생
 - ✓ 일반적으로 물류기업의 대출 금리는 제조기업 대비 1 ~ 1.5%가 높은 수준
 - ✓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여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국책은행의 지원을 유도 필요

시장 맞춤형 물류전문인력 양성

- 범용형 인재 이외에 특수 분야 및 특정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
 - ✓ 산업연계 물류수업도 도입하여 보다 심화된 분야별 물류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
 - ✓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물류 대학원 과정에 국내 물류중사자들을 파견하여 현지 교육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병행

35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2. 기업 대응방안

적극적 진출 마인드 변화

- ◆ 서부 물류시장은 진출 초기 분명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진출하지 못하면 시장 선점 기회는 사라질 가능성 높음
- ◆ 사무소, 분공사, 법인, 동반진출, 공동진출 등 다양한 Option을 선택하여 최단기간 내에 진출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할 필요

한국 물류기업 공동 진출

- ◆ 국내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형태가 아니라면, 단독 진출보다 여러 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리스크 공동 부담)
- ◆ 서부지역은 중국 국영, 지역 거점 기업 영향력이 매우 크고, 큰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규모 물류기업은 역량을 합쳐 진출해야 할 필요

2. 기업 대응방안

현지 합작 진출

- ◆ 한국 제조기업 동반진출, 물류기업 공동진출에서도 현지 물류기업과 합작 필요
 - ✓ 초기 단독 진출은 리스크가 크며, 운송입찰 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
 - ✓ 중국 현지 기업은 단독으로 가능하나, 인프라, 장비 없는 초기 진출 기업은 어려움
- ◆ 현지 기업과 우선적으로 화물대리(Forwarding) 합작 통해 시장 확대 방안 모색

감사합니다 !

jooho@kmi.re.kr

[Session 2]

국경무역의 활성화

[발표 1]

국경간 교역(Cross-Border Transactions)의 쟁점과 전망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國境間 交易(Cross-Border Transactions)의 爭點과 展望

2016. 08.18

김대원 (서울시립대)

목차

- ▶ ‘국경간’(cross-border)의 의의: 지역(regions)의 분류
- ▶ ‘교역’(transactions)의 의의
 - 대상: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 분류: 통상/투자/금융
- ▶ 국경무역의 전통적 의무
- ▶ 국경무역의 새로운 의무
- ▶ 전망

1. 國境間の 의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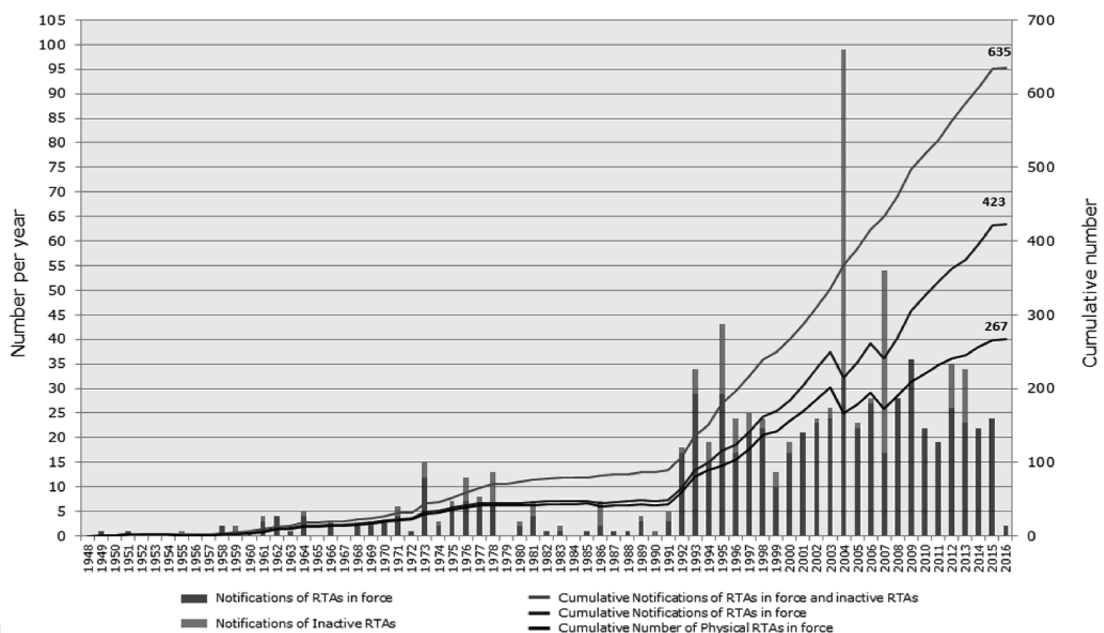
- ▶ 지역의 3가지 분류 (S. Tay)
 1. 지역적 정서가 바탕에 깔린 정체성에 근거한 지역 (identity-based regions): 예) 전통적인 국가
 2.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 (geopolitical-weighted regions): 예) 독립적 관세지역
 3. 정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발달을 반영하는 기능적 지역 (functional regions): 예) WTO와 EU, NAFTA, 한중 FTA, TPP 등과 같은 지역무역공동체 (regional trade area: RTA)
- ▶ 국경교역의 맥락에서 보면 1→2→3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RTA를 통해 조망 가능

쿤밍세미나 (서울시립대 김대원) 2016-08-09

3

1-1 지역무역협정(RTA)의 발흥

Evolu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world, 1948-2016



Note: Notifications of RTAs: goods, services & accessions to an RTA are counted separately. Physical RTAs: goods, services & accessions to an RTA are counted together. The cumulative lines show the number of notifications/physical RTAs that were in force for a given year. Source: WTO Secretariat.

쿤밍세미나 (서울시립대 김대원) 2016-08-09

4

- ▶ 대상 (주요 협정)
 - 상품 (GATT)
 - 서비스 (GATS): 4가지 모드. 그 중 3번째 모드인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투자와 관련
 - 지적재산권 (TRIPS)
- ▶ 분류
 - 통상 (trade)
 - 투자 (investment)
 - 금융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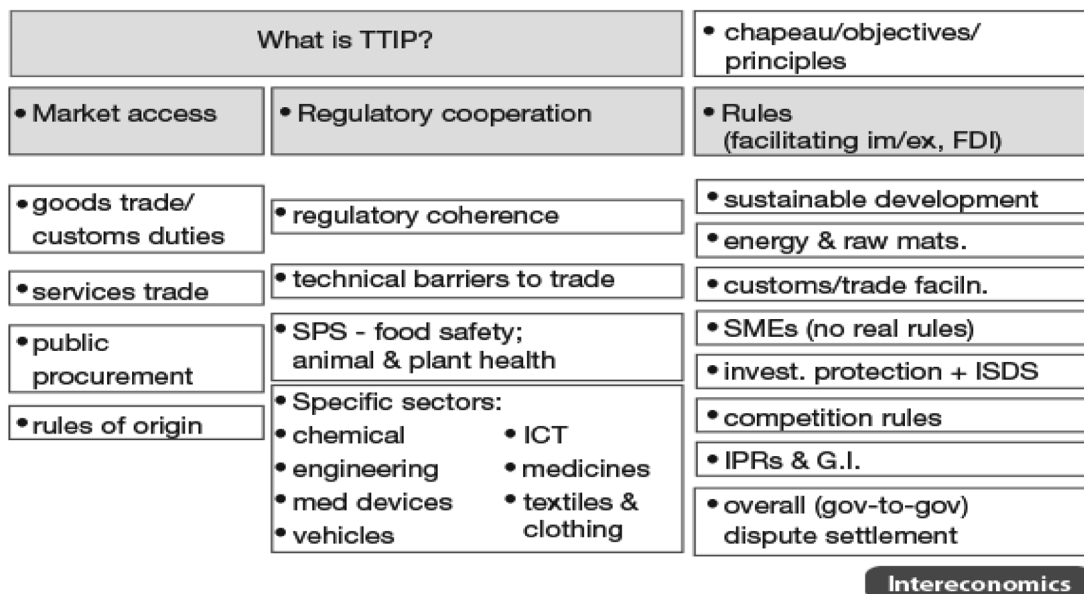
2-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상 교역의 의의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itial Provisions & General Definitions 2. National Treatment & Market Access for Goods 3. Rules of Origin & Origin Procedures 4. Textiles & Apparel 5. Customs Administration & Trade Facilitation 6. Trade Remedies 7.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8.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9. Investment 10.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11. Financial Services 12.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13. Telecommunications 14. Electronic Commerce 15. Government Procurement 16. Competition Policy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 State-Owned Enterprises (SOEs) 18. Intellectual Property 19. Labor 20. Environment 21. Cooperation & Capacity Building 22. Competitiveness & Business Facilitation 23. Development 24.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s 25. Regulatory Coherence 26. Transparency & Anti-Corruption 27. Administrative & Institutional Provisions 28. Dispute Settlement 29. Exceptions & General Provisions 30. Final Provisions U.S.-Japan Motor Vehicle Trade Non-Tariff Measures Japan: Parallel Negotiations on Non-Tariff Measures |
|--|---|

쿤밍세미나 (서울시립대 김대원) 2016-08-09

7

2-2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정상 교역



쿤밍세미나 (서울시립대 김대원) 2016-08-09

8

3. 국경간 교역의 전통적 의무(1)

▶ 비차별의무

- 내국민대우: 동종성+불리한 대우 금지
- 최혜국대우: 동종성+ 동등한 대우
 - 단일 국가간 교역에서는 중요한 역할
 - RTA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 MFN의 의미는 퇴색
 - 투자/서비스(금융포함)의 경우 ‘양자간’ MFN의 미래효에 유의
 - 예) 한중 FTA 제 12.4조: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다음의 회원자격에 기인한 모든 특혜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국경간 교역의 전통적 의무(2)

▶ 시장접근

- 교역장벽의 제거 또는 감소
- (상품)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 지속적인 관세 감축
 - 비관세장벽의 원칙적 금지 (GATT 제11조 등)
- (서비스) 시장접근 (GATS 제16조)
 -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양적 제한 금지, 현지주재의무(local presence) 부과 금지 등
- (투자) 투자자/투자에 대한 대우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최저기준대우 등

4. 국경간 교역의 새로운 의무

- ▶ 투명성 (Transparency: ‘right to know’)
 - “Degree to which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and the process by which they are established, are open and predictable” (WTO Glossary)
 - 투자: 2014년 발효된 UNCITRAL Transparency Rules
 - 금융: Basel III
- ▶ 특별하고 차별적 대우(S&D treatment):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동향에 유의
- ▶ 기타 비상업적 가치에 관한 내용
 - 일반 예외 (WTO 등)
 - 각종 RTA상의 환경, 노동, 인권 관련 규정

쿤밍세미나 (서울시립대 김대원) 2016-08-09

11

5. 결론: 전망

- ▶ 국경간 교역의 확대에 따라 통상/투자/금융 등의 수렴화 경향 가속화
- ▶ RTA의 증가로 MFN의무의 내용과 영향 변화
- ▶ 공급경로(supply chains)의 국제화에 따라 원산지 규정 등의 중요성 부각
- ▶ 시장접근 등과 같은 상업적 가치와 관련된 의무 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등의 비상업적 가치에 관한 규정의 증가에 따른 국경간 교역 변화에 유의
- ▶ 규범적으로는 교역의 ‘헌법화’ (constitutionalization) 가 진행

쿤밍세미나 (서울시립대 김대원) 2016-08-09

12

[발표 2]

중-베트남 국경무역 현황과 활성화 방안

Mahongpo 교수

중국운남성 홍하학원

중-베트남 국경무역 현황과 활성화 방안

마홍보(马洪波)

(원남텐팡(云南天方)변호사사무소,
홍허저우(红河州)베트남연구센터)

一.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기본상황

- 중국-베트남 양국간 무역액은 1991년 3,200만 달러, 2003년 46억3,000만 달러, 2009년 210억4,800만 달러, 2011년 400억 달러, 2013년 654억8,000만 달러, 2014년 836억4,000만 달러, 2015년 958억2,000만 달러로 중국의 대외무역 연평균 성장률 18%를 훨씬 넘어섰다.
- 양국간 무역에서 중국은 상당히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2014년 양국간 무역액은 836억4,000만 달러이며, 그 중 중국의 수출액은 637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199억 달러였다. 2015년 양국간 무역액은 958억2,000만 달러이며, 그 중 중국의 수출액은 661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296억8,000만 달러였다. 2015년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3.8% 증가했으나,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은 49.1% 증가했다.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 증가폭은 반대 경우의 약 13배에 달한다.

一.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기본상황

- 중국-베트남의 무역구조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기술, 자본 집약형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양국간 무역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 2013년 베트남이 중국에서 수입한 주요 제품구조에서 기기설비와 부품이 18%, 방직, 피혁 및 신발원료가 15%, 전화 및 부품이 15%, PC 및 전자제품이 12%, 철강 및 각 종류 제품이 9%를 차지함. 중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주요 5대 품목인 전자기계, 방직, 비철금속, 화공품 및 광산품은 베트남에 대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한다.

一.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기본상황

- 2014년 베트남이 중국에서 10억 달러 이상 수입한 상품에는 8개 품목이 있으며, 이는 각각 기계설비(80억 달러), 휴대폰 및 부품(63억 달러), 패브릭(46억6,000만 달러), PC, 전자 및 부품(45억7,000만 달러), 철강재(38억6,000만 달러), 석유(15억7,000만 달러), 방직 및 피혁원료(15억4,000만 달러), 철강제품(10억3,000만 달러)이다.
- 중국은 베트남에서 주로 농산물 중심으로 수입하는데, 중국에 대한 베트남 수출액 중 농림수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2%이며 이것이 베트남의 대외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에 달함. 베트남 측의 5대 상품 품목은 광산품, 플라스틱, 식물, 전자기기 및 방직으로 총액의 84% 가량을 차지한다.

二.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현황

- 국경무역은 중국-베트남 양국간 무역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경지역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및 양국간 우호적 관계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베트남 무역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 국경무역 총액은 275억6,000만 달러였다. 그 중 중국-베트남 국경무역액은 234억 달러(大贸는 958억2,000만 달러)로 85%를 차지했으며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二.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현황

- 중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상품은 크게는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제품, 작게는 에어컨, TV, 휴대폰, 베트남산 과일, 쌀, 커피 등이 있으며, 이는 이미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베트남 국경무역에서 베트남이 주로 수출하는 화물은 농림어업제품, 공업가공품, 광산품이다. 수입 화물은 주로 기계설비, 자동차 원료 및 연료, 전자제품, 식품, 일상 생활용품 등이 있다.

二.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현황

- 베트남과의 국경무역과 경제협력에 있어서 윈난은 경제기반이 약하고 지리적 경쟁력이 명확하지 않아 광시(广西)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광시는 홍목(红木) 시장을 기반으로 홍콩, 광둥, 타이완, 마카오와 협력하고 있으며 항구, 국경경제합작구 발전이 윈난보다 빠르다.

표 1-1 2009-2013년 윈난-베트남 무역액이 중국-베트남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도	수출입 무역총액			수출 무역총액			수입 무역총액		
	중국의 對베트남	윈난의 對베트남	전국에서의 윈난 비중	중국의 對베트남	윈난의 對베트남	전국에서의 윈난 비중	중국의 對베트남	윈난의 對베트남	전국에서의 윈난 비중
2009	2104518	7900	0.3754%	1629765	6613.2	0.4058%	474753	1286.8	0.2710%
2010	3008608	9494	0.3156%	2310154	7890	0.3415%	698454	1610	0.2305%
2011	4020784	12100	0.3009%	2909014	9730	0.3345%	1111770	2410	0.2168%
2012	5043941	10460	0.2074%	3420811	8290	0.2423%	1623129	2170	0.1337%
2013	6547819	13300	0.2031%	4858630	10077	0.2074%	1689189	2560	0.1516%

二.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현황

- 중국-베트남 국경무역은 양국의 경제수준, 양국관계, 정책제도에서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역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 가령, 윈난에서 중요한 허커우(河口) 항구는 최근 몇 년간 국내와 베트남 무역정책 변경으로 인해 수출입 무역총액이 불안정했으며 수출입 무역량과 상품변동성 상의 기복이 상당히 심했다.

허커우 항구 2010-2014년 수출입 총액 단위(만 위안)

연도	수출입 총액	동기비%	수입	동기비%	수출	동기비%
2010年	640016.3	37	128520.7	12.2	511495.6	45.1
2011年	764610	19.5	131631.5	2.4	632978.5	23.7
2012年	616500.5	-19.4	74397.4	-43.5	542103.1	-14.4
2013年	661443.3	7.3	113778	52.9	547665.3	1.0
2014年	557342.8	-15.7	49401.6	-56.6	507941.2	-7.3

三.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촉진방안

- 전국 각 성(省), 각 주(州)가 유기적인 산업연동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정책 측면의 체계도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고 있다.

三. 중국-베트남 국경무역 촉진방안

- 촉진방안: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 "양랑일권(兩廊一圈)' 계획
 - 금융과 화폐 협력 전담팀
 - 중국-아세안 엑스포
 - 국경경제합작구

감사합니다!

[발표 3]

북중 국경무역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태황 교수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대외정책포럼
중국 쿤밍세미나
(2016. 8. 18)

북중 국경무역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태황(金泰樞)



明知大 國際通商學科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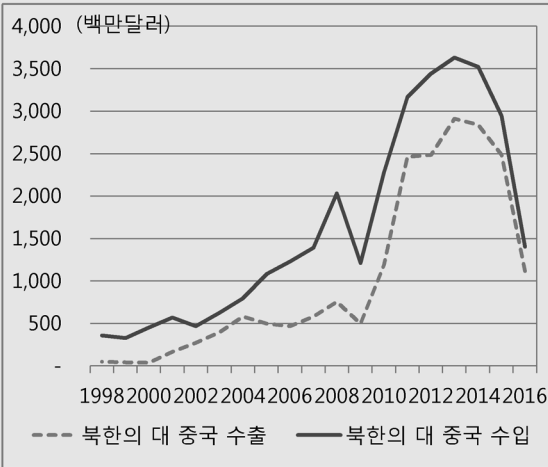
1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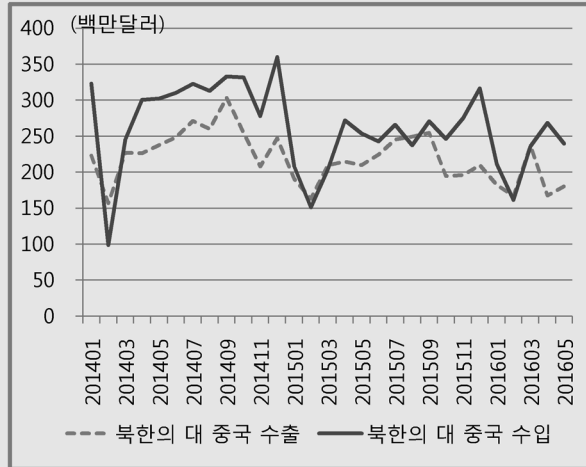
- 글로벌 경쟁관계가 치열해지면서 거래비용을 낮추려는 국가간, 지역간 경제협력과 통합의 유인력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은 상품무역에서 가격과 기술력의 보완적 관계와 대체적 경쟁관계를 복합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상생발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적 발전 구도(유라시아 실크로드)는 북한의 폐쇄성과 고립성으로 인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한국과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정치군사적 대립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통로이므로 韓中 교역관계와 北中 교역관계는 상호연계성의 교차로(交叉路)가 됨.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北中貿易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北中 국경무역의 활성화가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임.
- 北中貿易은 지정학적으로 정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복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對北 경제제재와는 별도로 北中 교역구조를 고찰함으로써 北中 경제구조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강화 유인력과 기본 틀을 탐색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北中貿易의 특성을 고찰하고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동북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北中 교역의 활성화는 韓中 및 南北 교역관계의 활성화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무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것임.

2

북중 무역 추이 (2014. 1 ~ 2016. 5)



주 : 2016년은 1~6월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주 : 2016년은 1~5월
자료 : 중국해관통계(www.customs.gov.cn)

- 2015년 북중 상품무역은 54억달러 규모로 중국의 총 무역액의 0.15% 수준에 불과하여 중국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군사적 비중에 비해 경제적 비중은 미약함.
- 북중 무역규모는 2000~2013년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대내외 요인들에 의해 2013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
- 월별 교역량을 살펴보면 동절기의 교역량 감소가 두드러지며 월별 변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왔으며, 2013년 이후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감소한 양상을 보임.

3

북한의 對 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

주요 품목(HS code)	2014	2015	2016(1~5)
광물성 연료/광물유(油)/증류물/역청 물질/광물성 왁스(27)	1,152,356,934 (40.2)	862,447,388 (33.6)	399,441,263 (42.7)
의류 및 그 부속품(62)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제외)	622,026,313 (21.7)	632,753,300 (24.7)	228,941,808 (24.5)
광(鑛)/슬래그/회(灰)(26)	338,734,638 (11.8)	204,729,101 (8.0)	80,012,505 (8.6)
어류/갑각류/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03)	117,985,194 (4.1)	154,179,874 (6.0)	58,035,109 (6.2)
의류 및 그 부속품(61)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적용)	142,574,512 (5.0)	108,017,339 (4.2)	29,565,310 (3.2)
철강(72)	89,482,037 (3.1)	53,029,836 (2.1)	13,942,473 (1.5)
구리와 그 제품(74)	16,519,580 (0.6)	12,642,322 (0.5)	4,611,164 (0.5)
기타	386,451,428 (13.5)	536,757,936 (20.9)	121,071,724 (12.9)
총 액	2,866,130,934 (100.0)	2,564,557,096 (100.0)	935,621,356 (100.0)

(단위 : 미국달러,
경상가격, %)

주 : ()안은 비중
자료 : 중국해관통계
(www.customs.gov.cn)

-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물성 연료, 광물유(油),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HS코드 27) 등의 수출 비중이 약 40% 수준에 이름.
- 의류 및 그 부속품(HS코드 62, 61)의 수출 비중도 약 27% 수준을 차지함.
- 북한의 수출 총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50.9%에서 2013년 90.6%로 對 중국 의존도가 급격하게 심화됨(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5)

4

북한의 對 중국 주요 수입품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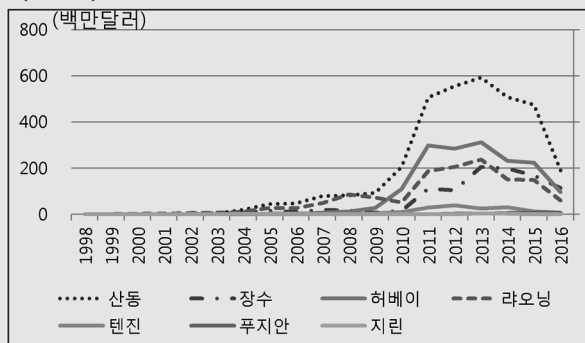
주요 품목(HS code)	2014	2015	2016(1~5)
전기기기 및 부품류(29)	419,409,991 (11.9)	332,239,211 (11.3)	115,558,092 (10.3)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및 부품류(84)	307,013,093 (8.7)	239,401,523 (8.1)	92,359,989 (8.3)
철도/궤도 차량 및 부품류(87)	210,516,927 (6.0)	196,140,296 (6.7)	73,836,629 (6.6)
플라스틱류(39)	193,437,785 (5.5)	152,606,371 (5.2)	67,099,746 (6.0)
광물성 연료/광물유(油) 및 그 증류물/ 역청 물질/광물성 왁스(27)	191,349,628 (5.4)	147,294,020 (5.0)	43,594,183 (3.9)
인조필라멘트/인조방직용 섬유류 재료의 스트립(strip)(54)	166,277,737 (4.7)	152,461,755 (5.2)	57,808,034 (5.2)
철강(74)	107,907,452 (3.1)	107,611,304 (3.7)	45,382,807 (4.1)
기타	1,925,866,866 (44.7)	1,619,096,980 (44.9)	622,163,140 (45.7)
총액	3,521,779,479 (100.0)	2,946,851,460 (100.0)	1,117,802,620 (100.0)

(단위 : 미국달러, 경상가
격, %)주 : ()안은 비중
자료 : 중국해관통계
(www.customs.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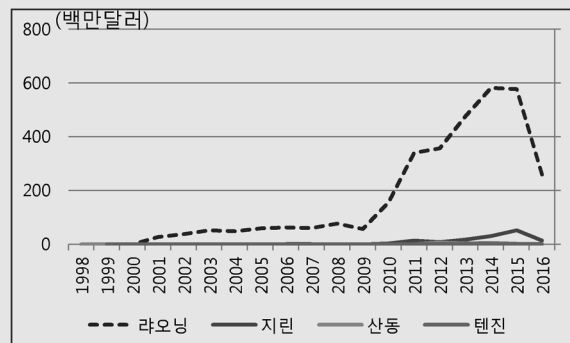
-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들은 주요 수출 상품들과는 달리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산업 기계 및 설비 부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단일 상품으로는 플라스틱류의 수입이 2016년 상반기에 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광물성 연료 등(HS코드 27)과 철강(HS코드 74)은 산업내 무역이 이뤄지는 주요 품목들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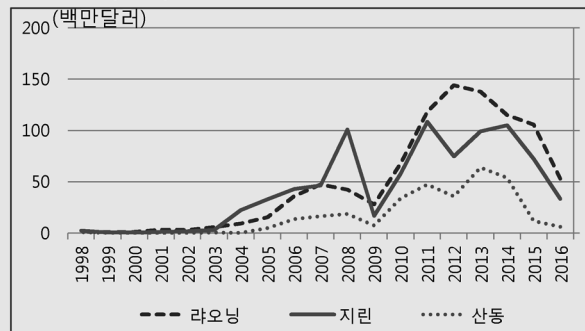
북한 주요 수출품목의 중국 성(省)별 교역 추이 (1)

■ 광물성 연료/광물유(油)/증류물/역청 물질/광물성 왁스
(HS: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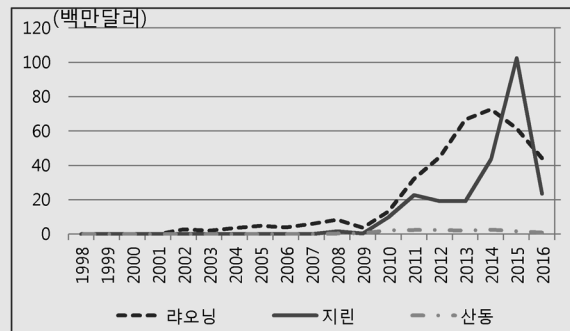
■ 의류 및 그 부속품 (HS: 62)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제외)



■ 광(鑛)/슬래그/회(灰)(26)



■ 의류 및 그 부속품(HS: 61)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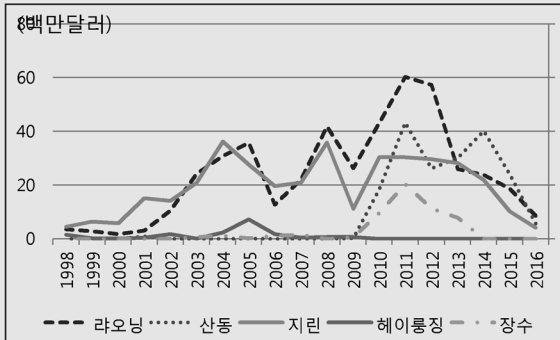


주 : 2016년은 1~6월.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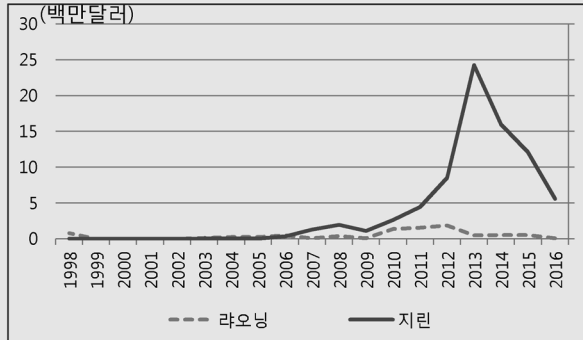
6

북한 주요 수출품목의 중국 성(省)별 교역 추이 (2)

• 철강 (HS: 72)



• 구리와 그 제품 (HS: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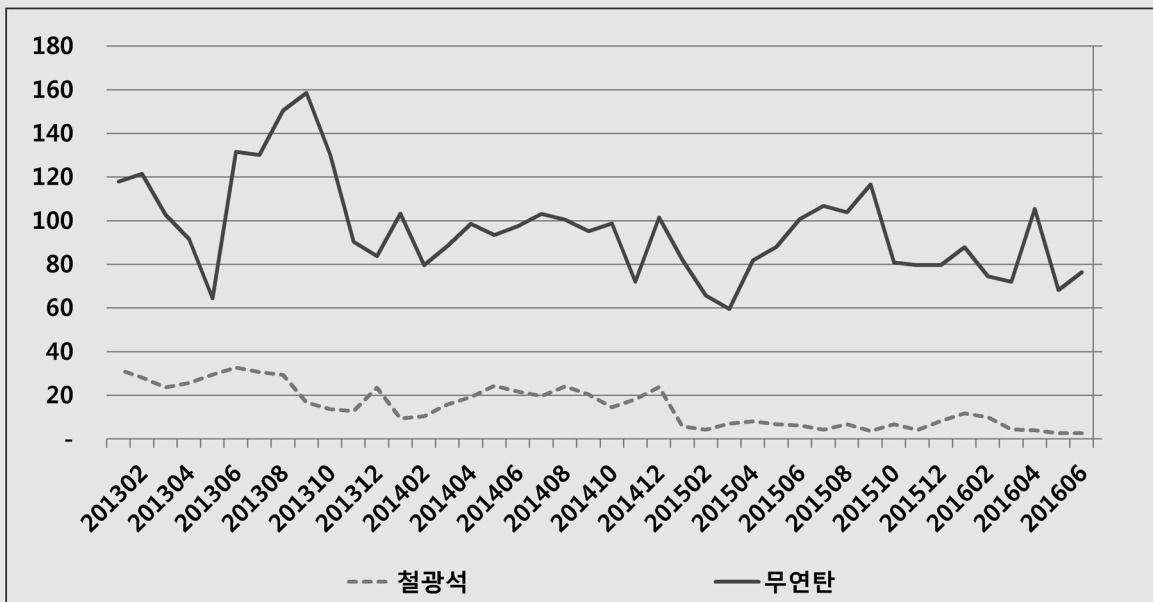


주 : 2016년은 1~6월.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 1998~2016년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별로 주요 수출 대상의 중국 성(省)을 살펴보면, 랴오닝省, 지린省, 산둥省에 대한 수출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랴오닝省과 지린省은 전체 품목에 걸쳐 북한의 핵심적인 수출 지역으로 유지되어 옴.
- 북한의 對 중국 수출이 육로 중심의 국경무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省들과의 교역은 연도별 변동성이 매우 크고 지역별 차이도 크게 나타남.
- 광물성 연료 등과 철강의 경우 장수省, 허베이省, 텐진 등 非국경 지역에 대한 수출도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음.

7

<참고> 북한의 철광석과 무연탄 수출 추이 (2013.1~20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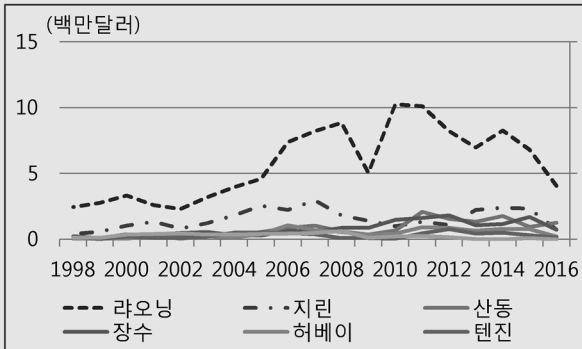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 2011년 무연탄 수출액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생산량 증가로 2010년에 비해 2.9배 급증하여 주요 수출품목이 된 이후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냄.
- 2015년 철광석 수출액은 2014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급감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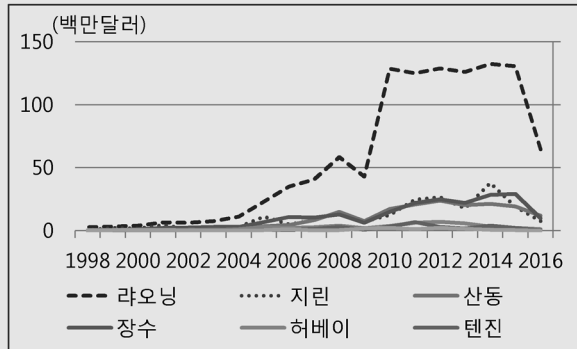
8

북한 주요 수입품목의 중국 성(省)별 교역 추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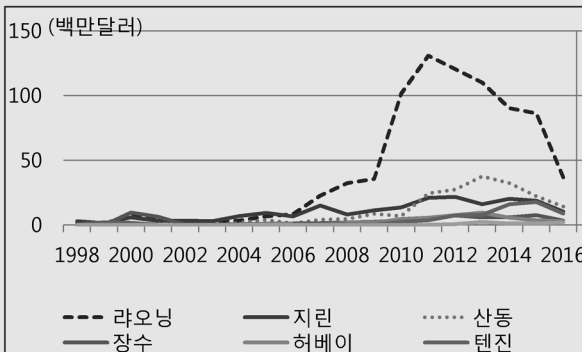
■ 전기기기 및 그 부품류(HS: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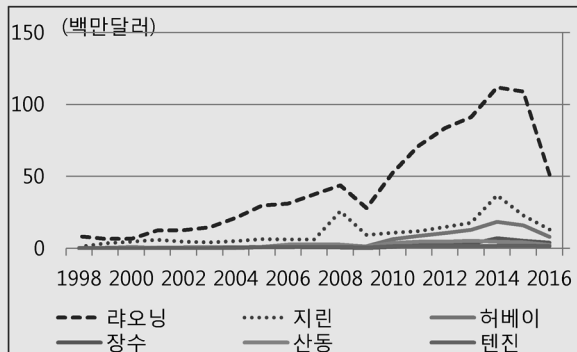
■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및 부품류(84)



■ 철도/궤도 차량 및 부품류(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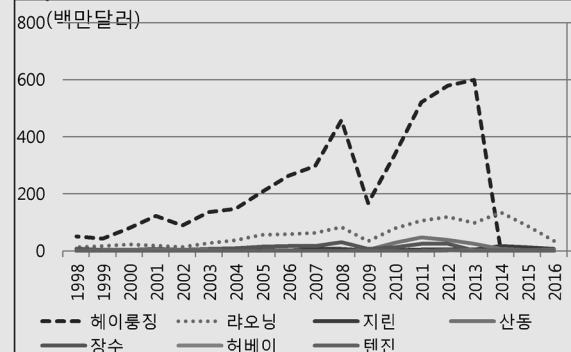
■ 플라스틱류(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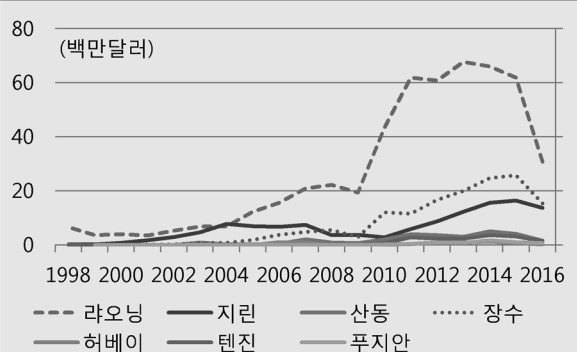
주: 2016년은 1~6월.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북한 주요 수입품목의 중국 성(省)별 교역 추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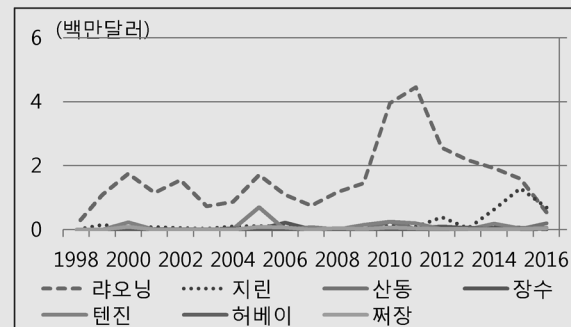
■ 광물성 연료/광물유(油) 및 그 증류물/역청물질/광물성 왁스(27)



■ 인조필라멘트/인조방직용 섬유류 재료의 스트립 (54)



■ 철강(74)



- 1998~2016년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별로 주요 대상 중국 省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오닝省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반면에 품목별 수입 비중이 분산됨에 따라 수입 대상 省들도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6-7개 省들로부터 수입거래를 유지해 옴.
- 국경이 인접하지 않은 장수省, 허베이省, 텐진이 주요 교역 지역으로 역할해 옴.

주: 2016년은 1~6월.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10

北中貿易의 구조적 특성

- 북한 대외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무역 다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광물성 연료(무연탄 등)와 1차 의류 가공품을 비롯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특정 품목들로 수출품목이 20여년 간 제한되어 온 점은 북한이 對 중국 무역을 단순한 국경거래로 인식하고 산업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을 방증함.
- 북한이 중국의 거대 소비 및 생산 시장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요 수출지역이 몇몇 省에 국한됨으로써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통해 무역의 확대 재생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
-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으로부터의 영향력이 미미한 반면에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구조를 대내적인 산업 및 생산 구조의 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 북한과 중국의 경제력의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됨으로써 경제협력과 통합의 상승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국제적 상호 분업체제 또는 상생발전 구도를 강화하기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
- 北中 무역관계는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대외 환경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인해 北中 교역관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한적이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11

北中貿易 추이의 요인 분석

- 北中 교역의 위축, 특히 북한의 對 중국 수출 감소에는 산업 내 경쟁력 변화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음(최장호/최유정, 2016, pp.5-9).
- 대외적 요인으로는
 - 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 품질 경쟁력이 낮은 북한산 원자재의 가격 경쟁력의 취약성이 심화
 - ② 중국 경기의 둔화와 환경정책 강화 : 전반적인 석탄과 철광석 소비의 감소와 수입량의 감소로 북한산 무연탄/철광석 수입 수요의 감소
 - ③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 철강의 과잉 공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품질의 북한산 철광석에 대한 수입 수요 감소
- 대내적 요인으로는
 - ① 대북제재의 강화로 북한은 상품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수입대체 생산을 증대하려는 정치적 대책을 강조함.
 - ②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대외 정치적 강경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소비재 수입 규제와 대체 생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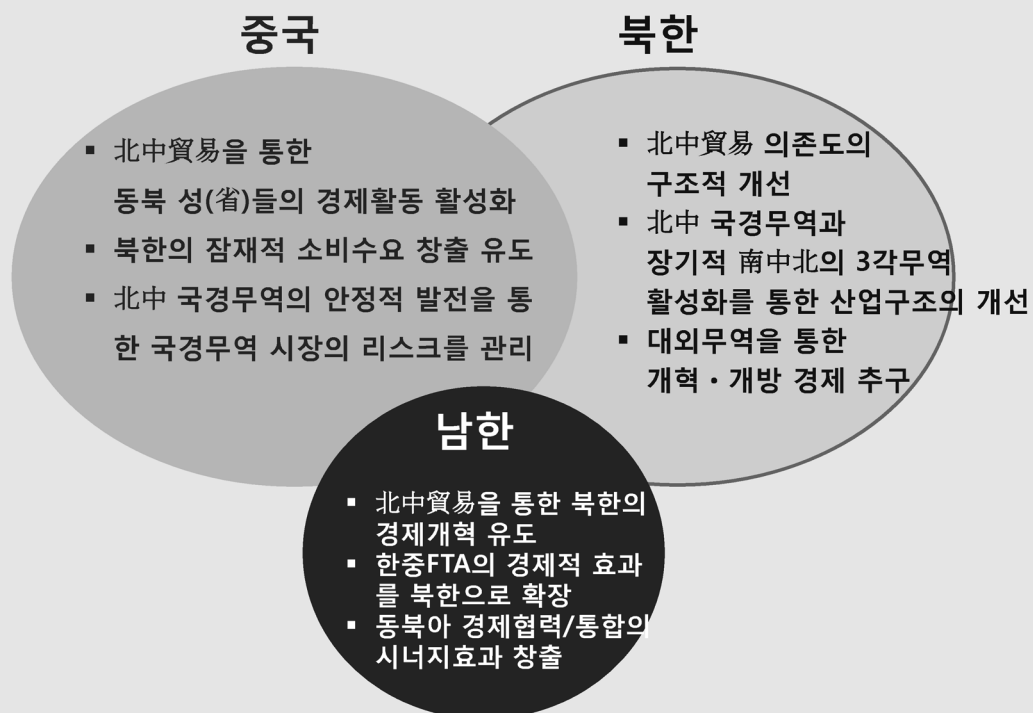
12

北中 국경무역의 전망

- 北中 국경무역은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동안 최근의 위축 상태가 불가피할 것임.
- 중국의 경기둔화, 광공업 구조조정,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환경정책의 강화 등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기존 對 중국 무역구조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임.
- 공식적인 제재를 우회하여 생필품을 명목으로 하는 非공식적인 무역은 유지 또는 확대될 수는 있으나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을 기대할만한 수준의 교역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의 핵포기협상이 진전을 이룬다면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활동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나타낼 것이나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임.
- 이에 따라 北中 국경무역은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활성화가 어렵게 보이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3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



14

北中 국경무역의 활성화 방안 (1)

- 최근 교역의 감소세는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 및 환경 정책의 변화와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영향을 받으므로 정세적 구조적 문제 인식이 중요함.
- 중국 경제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에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증대되었으므로 北中 교역관계의 활성화는 중국의 적극적인 정치경제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北中 국경무역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평화의 정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함.
- 北中 교역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교역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북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중국-북한의 3각무역 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의 소비수요와 北中貿易의 구조를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중국의 중계(중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유효할 것임.
- 북한의 교역조건 악화는 환율의 시장 조절 기능의 미흡을 고려하면 수출가격의 하락과 품질 저하를 의미하므로 북한 상품 생산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15

北中 국경무역의 활성화 방안 (2)

- 북한과 중국의 경제규모의 격차와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북한의 중국 의존도의 심화는 교역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무역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 경제의 확장적 선순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강화가 北中 교역관계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3각 구도를 강화해야 함.
-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을 위한 한국 중간재의 중국내 임가공을 통한 중국 원산지의 북한 수출이 유효할 것임.
- 북한의 교역 품목들이 제한적이므로 북한의 생산과 소비 구조의 다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이 필요함.
-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산둥성 등에서 인구 분포적으로 북한과 남한 상품과 서비스에 친화적인 소비수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결론적으로 北中 국경무역의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동북아의 경쟁력 강화에 유효할 것임.

16

결론

- 北中 국경무역은 북한 대외무역의 유일한 통풍구이며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유효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北中貿易 규모가 적고 위축되었지만 중국은 동북 성(省)들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북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北中貿易은 변동성이 높으나 무역 활성화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잠재적 소비수요의 증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유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 북한은 北中貿易 활성화를 통해 생산체계와 산업구조 변화의 동인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경제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한-중국-북한의 3각무역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장기적 동북아 협력모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를 북중관계로 확장하는 전략적 시도가 필요함.

17

참고문헌

- 이종규 (2016),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vol.18, No.7, KDI, pp.27-36.
- 최장호·최유정 (2016),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분석」, 『KIEP 오늘의 경제』, vol.16, No.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2015),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5), 「최근 10년간 남북한의 對 중국 경제교류 추이 비교」
- KIEP 북경사무소 (2016),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제재 리스트의 북중 수출입 현황」, 2016. 4.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 www.kita.net
- 중국해관통계 : www.customs.gov.cn

18

Thank you

謝謝

ecohtk@mju.ac.kr

[Session 3]

농업협력

[발표 1]

윈난 농업의 특징, 현황 및 발전방향

Zhengbaohua 소장

운남성 사회과학원

윈난 농업의 특징, 현황 및 발전방향

정바오화(郑宝华)
윈난성(云南省)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원난 농업의 현황

★농업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원난 1차 산업 생산가치는 GDP의 15.0%를 차지, 전국 평균 수준보다 6%p 높다.

✧식량 생산량은 전국 3.0%, 육류 총 생산량은 4.4%, 담배 생산량은 15.1% 차지한다.

✧72.9%의 사회노동력이 농업 중심 생산활동에 종사한다.

원난 농업의 현황

➤ 그러나 우리의 농업 노동생산성은 아주 낮다.

- ✓ 2015년 원난의 각 향촌(乡村) 취업인구가 창출한 농림목축어업 총 생산가치는 전국 평균 수준의 53.8%에 불과하다.
- ✓ 2015년 원난의 토지 단위면적 경지에서 창출된 농림목축어업 생산가치는 전국 평균 수준의 83.9%에 불과하다.
- ✓ 2015년 원난의 농작물 파종면적 기준으로 계산한 식량의 단위생산량은 전국 평균 수준의 76.3%에 불과하다.
- ✓ 2015년 원난의 농촌 상주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국 평균 수준의 72.2%에 불과하다.

원난 농업의 현황

- 이는 원난 자체의 농업조건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난성의 "농작환경"에 적합한 농업 발전 노선을 찾지않은 채 오랫동안 식량 생산에만 치중해왔기 때문이다.
- 1978년 원난의 식량작물 파종면적이 농작품 파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약 10%p나 높다. 2007년에 와서야 비슷해졌는데 2015년에는 전국이 약 68.6%, 원난이 62.4%였다. 원난의 식량 생산은 효율성과 효율성이 모두 비교적 낮다.

원난 농업의 현황

✦ 또한 산업 간 지탱력이 아주 약하다. 2015년, 원난 농산품의 가공 생산가치는 농림축산어업 총 생산가치의 65%에 불과했는데 전국은 220%, 농업 선진국은 400% 이상에 달합니다. 담배공업을 제외한 경공업 발전 수준이 심각하게 낮으며, 2차 산업, 3차 산업의 농업에 대한 견인 지탱력이 아주 약하다.

원난 고원 농업의 발전방향

- 2011년, 성(省) 위원회와 인민정부는 고원(高原) 특색 농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2015년 이를 "고원 특색 농업 현대화"로 강화했다.
- 핵심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고집약도, 하이테크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 방향은 다양성을 갖춘 농업과 1, 2, 3차 산업 간 시너지 구현하는 것이다.
- 이것은 평지농업, 도시농업 및 정밀농업에 대응하는 농업 발전 유형이다.

원난 고원 농업의 발전방향

- ✦ "4대 이미지": 풍부한 다채로움, 친환경적인 생태, 안전한 우수품질, 4계절의 운치
- ✦ "6대 콘텐츠": 고원 곡창지대, 특색있는 경제작물, 산지목축업, 담수어업, 고효율 임업, 개방적 농업
- ✦ "12대 브랜드": 원난담배, 원난사탕, 원난차, 원난고무, 원난채소, 원난화훼, 원난고구마, 원난과일, 원난약, 원난가축, 원난생선, 원난삼림





원난 고원 농업의 발전방향

- "담배, 사탕, 차, 고무, 화훼, 과채, 한방약, 가축, 수산물, 식물성 오일" 등 특색 농업을 중심으로 고유의 1차 산업 업그레이드한다.
- 특색있는 경공업을 적극 발전시켜 2차 산업을 강조하는 동시에 1차 산업을 견인하고 3차 산업을 유도한다.
- 특색있는 여행업을 적극 발전시켜 3차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한 견인 작용을 강화한다.
- 3차 산업 간의 유기적 통합과 상호보완 촉진으로 3차 산업 간 시너지 효과 확대한다.

원난 고원 농업의 발전방향

➤산업 선택

- ✓ 소농경제 특성에 적합한 생태농업, 유기농업 등 신형 현대농업 노선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고원 농업을 적극 활성화
- ✓ 녹색 식품, 유기농 식품, 바이오 의약, 바이오 헬스케어제품, 바이오 농약, 농작물 종자 등 신형 부흥산업 발전 가속화
- ✓ 농산품 가공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업 산업체인을 확대해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탱력을 개선
- ✓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십분 활용해 관광농업과 향촌여행업 발전을 가속화

소중한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발표 2]

중국 운남성 농업 현대화 방향과 시사점

이수행 박사

경기연구원

중국 운남성 농업 현대화 방향과 시사점

상생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수행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CONTENTS

1. 서론
2. 운남성 농업 현황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4. 시사점

1. 서론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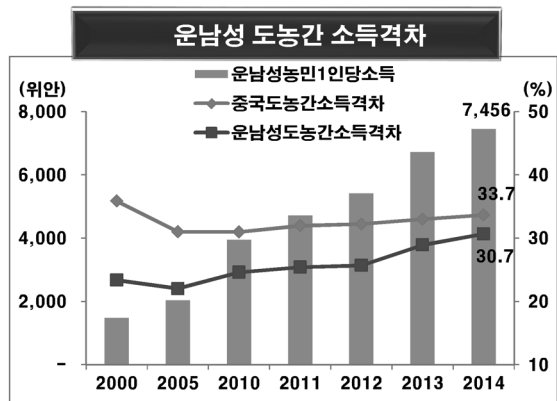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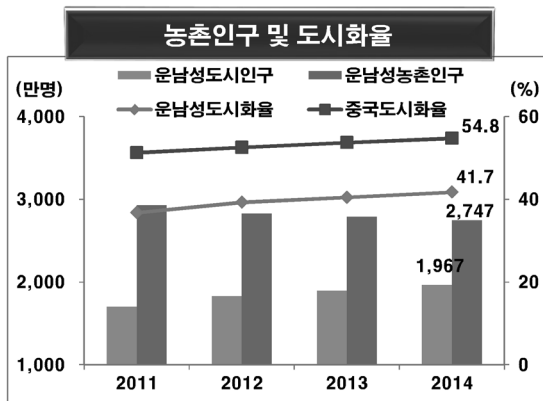
- 농업현대화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 경영 등 농업 전반의 발전 과정을 의미
 - 중국의 농업현대화는 전통농업에서 현대화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표현
 - 현대화 : 현대적인 공업, 과학기술, 경영방법 등에 기초해 농업생산력 향상
- 중국은 3농문제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로 농업현대화 적극 추진
 - 중국농업의 현대화는 농업과 농촌을 포괄
- 본 과제의 목적 : 중국 운남성 농업의 현대화 방향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2. 운남성 농업 현황

2. 운남성 농업 현황

● 운남성은 중국 평균 수준에 비해 도시화율이 낮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각

- 운남성 도시화율 : 41.7%, 중국 : 54.8%(2014년 기준)
- 운남성 농촌인구 : 2,747만명, 도시인구 : 1,967만명(2014년 기준)
- 운남성 농민 1인당 순소득 7,456위안(2014년 기준)
- 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농촌의 1인당 순소득 비중 : 운남성 30.7%, 중국평균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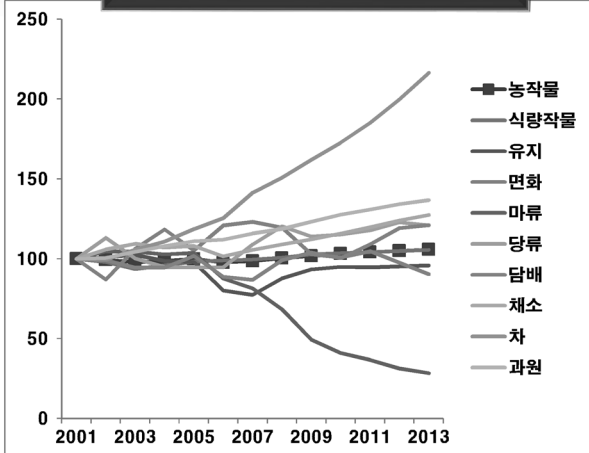


2. 운남성 농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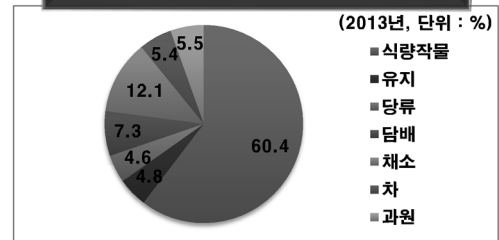
● 운남성의 농작물은 식량작물, 채소, 담배, 차 등의 재배면적 비중이 높음

- 2000년대 이후 중국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 : 차, 과수, 채소 등 확대
- 중국 작목별 재배면적 중 운남성 비중이 높은 작목 : 담배, 당류, 차 등(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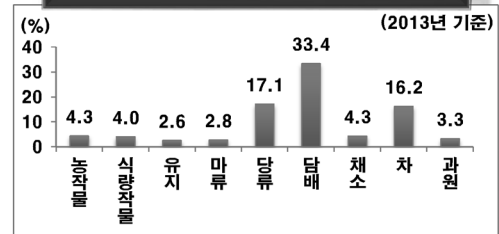
중국 작목별 농작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



운남성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비중



작목별 중국 대비 운남성 재배면적



7

2. 운남성 농업 현황

● 중국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수준은 중국 평균 수준을 하회

- 중국 주요 농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빠르게 증가
- 운남성은 농업생산을 위한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운남성의 단위면적당 농작물 생산량은 중국 평균수준을 하회

중국 주요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단위 : kg/ha)

연도	곡물	면화	땅콩	유채	참깨	사탕수수	사탕무	담배
2001	4,800	1,107	2,888	1,597	1,061	60,625	26,807	1,732
2005	5,225	1,129	3,076	1,793	1,054	63,970	37,523	1,956
2010	5,524	1,229	3,455	1,775	1,312	65,700	42,498	2,219
2013	5,894	1,449	3,663	1,920	1,490	70,576	50,922	2,062
운남성 (2013)	4,537	1,942	1,617	1,719	896	62,690	-	1,976

자료 : 중국통계연감

8

2. 운남성 농업 현황

- 운남성의 1인당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중국 평균 수준을 하회(축산물 제외)
 - 축산물은 운남성 68.9kg, 중국 48.6kg으로 운남성이 중국 평균 수준 상회

중국 및 운남성 주요 농산물 1인당 평균 생산량

(단위 : kg)

연도	식량	면화	유지	축산물	수산물	우유
2001	355.9	4.2	22.5	38.0	29.9	8.1
2005	371.3	4.4	23.6	42.0	33.9	21.1
2010	408.7	4.5	24.1	45.8	40.2	26.7
2013	443.5	4.6	25.9	48.6	45.5	26.1
운남성 (2013)	390.3	0.0	13.0	68.9	10.4	11.7

자료 : 중국통계연감

9

2. 운남성 농업 현황

- 장위밍(张玉明)은 운남성 농업이 중국 평균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평가
(출처 :张玉明(2015), 加快转变发展方式 推进高原特色农业现代化)



10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1) 중국 농업의 현대화 과정

- ✓ 50년대~70년대 : 생산성 향상 위주의 현대화
 - 기계화(机械化), 비료화(化肥化), 수리화(水利化), 전기화(电气化)
- ✓ 70년대말~80년대말 : 경영방식의 현대화
 - 임대제(包产到户)를 핵심으로 한 농촌의 기본적인 경영제도 개혁
 - 1974~1984년 기간 동안 농업생산량 200% 성장 추정
- ✓ 90년대의 현대화 : 전반적인 생산 효율 향상 강조
 - 시장화, 산업화 등이 포함된 농업현대화 확대
 - 생태가 강조된 지속가능한 농업 대두
- ✓ 21세기의 현대화 :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와 병행하여 진행, 녹색개념 강조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2) 중국 지도부의 농업현대화 방향

✓ 시진핑

- 효율(产出高校), 안전(产品安全), 자원절약(资源节约), 친환경(环境友好) 강조

✓ 왕양(汪洋)부총리 5개 목표

- 토지의 규모화 경영 70% 내외
- 고표준의 농지 비중 60% 이상
- 농업 기계화 수준 80% 이상
- 과학기술공헌률 60% 이상
- 농민1인당 순수입 23,000위안 이상

✓ 한창푸(韩长赋)농업부 장관

- 시장지향적인 생산, 생산도구의 기계화, 생산과정의 정보화, 생산조직의 사회화, 경영방식의 산업화 강조

13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3) 중국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및 목표

✓ 운남성 농업의 발전 방향

- 고랭지의 특색 있는 농업현대화 추진
 - 담배, 당, 차, 고무, 호두, 과일, 채소, 화훼, 양잠, 버섯, 커피, 한약재, 담수어업, 축산업 등 위주의 발전 촉진
-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一体化)발전 촉진
 - 도농 연계발전, 도시와 농촌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균등화 등 촉진
- 신행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병행해 발전 촉진
- 농업구조의 고도화, 1, 2, 3차산업의 융합발전 촉진
- 농촌의 거주환경 개선, 저탄소의 녹색 순환농업 발전 촉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 향상 등

14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3) 중국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및 목표

✓ 운남성 농업현대화의 목표 : 목표연도 2020년, 소강사회 달성

- 농임목어업의 부가가치 3,000억위안 이상
- 농촌의 1, 2, 3차산업 총생산액 10,000억위안 이상
- 농업의 과학기술 공헌률 60% 이상
- 고랭지농업에 적합한 기술 도입 및 2020년 주요 농작물의 기계화율 50% 이상 달성
- 농촌의 생활쓰레기 처리율 90% 이상 달성
- 대외지향적인 농업현대화 추진: 농산물수출단지, 안전한 수출농산물 시범단지, 수출농산물의 물류가공단지, 종묘단지육성 등 조성

15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4) 운남성 농업현대화의 주요 정책 방향(13차 5개년 계획 참조)

✓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및 보급시스템 구축

- 각종 농업과학기술 자원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투입을 강화해 농업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 식량, 사탕수수, 차, 천연고무, 화훼, 채소, 담수어 등 위주 2020년까지 20개의 현대적인 농산업 기술시스템 구축
- 고랭지 농업의 종자보호 및 육종, 지역특색의 농작물 품종 연구 강화, 육종과 번식이 연계된 종자기업 육성
- 축산물 개량 추진, 축산물의 유전자원 보호, 개발 및 보급 능력 향상
-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 격려, 과학기술인력의 농업기술혁신 참여 확대
- 농업 생산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 추진

16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4) 운남성 농업현대화의 주요 정책 방향(13차 5개년 계획 참조)

✓ 고(高)표준의 농지 및 수리 건설 강화(목표년도 2020년)

- 2,000만무(亩)의 중저농지 개량, 2,400만무의 고표준 농지 건설 추진
- 관개농지 확대: 950만무 이상의 관개농지 신설, 누적관개농지 3,600만무 달성
- 농수(农水)가격 및 농수 분배제도 개선 등 농수이용효율 향상

✓ 다양한 형식의 적절한 농업 규모화 경영 확대

- 농촌의 토지임대소유권, 임대권, 경영권 등을 개선하고, 법에 의거한 경영권 양도 촉진
- 농업보조금, 금융, 3농 등 관련 정책을 활용해 농업의 적절한 규모화 경영 역량 강화
- 식량생산의 규모화,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 육성, 브랜드 농업, 1/2/3차산업의 융합발전, 농민이 경영수익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의 규모화 경영 등 지지

17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4) 운남성 농업현대화의 주요 정책 방향(13차 5개년 계획 참조)

✓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 육성

- 각종 유형의 가정농장, 대규모 농장, 농민합작사 등 적극 육성
- 공업, 상업 자본을 활용해 기업화 경영에 적합한 현대적인 농업(경공업, 양식업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농업서비스 등 발전 추진
- 대리경작, 연합경작, 토지위탁관리 등 전문화되고 규모화 된 농업서비스 발전 추진
- 신형직업농민 육성, 고등교육, 중등직업교육 등 자원을 활용해 반농반독(半农半读) 등 방식을 통한 근거리 농민 직업교육 추진
- 2020년까지 성급 강소농 100농가 이상, 농업선도기업 3,700호 이상, 합작사 6만개 이상, 가정농장 2만개 이상, 농촌인재 150만명 이상 등 육성

18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4) 운남성 농업현대화의 주요 정책 방향 (13차 5개년 계획 참조)

✓ 농업생산구조의 개선

- 증산정책 추진 및 70개의 식량 주산현 건설
- 고구마의 주식개발 추진, 유기작목, 특색 있는 잡곡 등의 발전 가속화

✓ 2020년까지 주요 작목 생산총액 확대

- 산지목축업, 과일 및 채소, 식량 등 1,000억 위안 이상
- 화훼, 차, 호두, 고무, 담수어 등 500억 위안 이상
- 양잠업, 야생버섯, 커피, 견과, 올리브유, 대나무 가공 등 100억 위안 이상 달성

✓ 농업의 해외진출 전략 추진

- 농산물 수출단지 건설 강화, 특색 있는 농산물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확대
- 주변국과 농업기술교류, 동식물 질병 감시 및 방역 등 협력 강화

19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4) 운남성 농업현대화의 주요 정책 방향 (13차 5개년 계획 참조)

✓ 농산물의 질과 안전 수준 향상

- 식품안전책임제 강화 : 농산물의 질과 식품안전을 당 간부 평가의 지표로 선정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질과 식품안전을 감독하는 시스템 구축
- 질병 축산물의 무해화 처리 및 양식업 보험과 연계시키는 메커니즘 건립 추진
- 축산물 도축 관리 및 인수전염병 방지 강화, 동식물 국경 검역 강화

✓ 농산물 가공산업의 고도화

- 식량주산지 중심의 농산물가공(저장, 신선보관, 건조 등)산업 발전 촉진
-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의 참여를 통한 이익 분배 촉진
- 농산물 가공기업과 농민 간의 안정적인 수급관계 구축(생산-가공-판매의 일체화)
- 50개의 농산물 가공시범단지 구축
- 농산물 가공기업을 통한 농민 일자리 창출, 농민의 임금성 수입 증가 추진

20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4) 운남성 농업현대화의 주요 정책 방향(13차 5개년 계획 참조)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시장 건설 강화

- 각종 농산물시장 개선: 2020년까지 100개 농촌 재래시장, 10개 대형 소비시장 건설
- 식량저장 및 물류시설 건설 강화: 20억근(12만톤)용량의 창고시설 신축, 26억근(16만톤) 용량의 창고 개선
- 곤명 국가양식교역센터 건립
- 특색 있는 농산물 산지의 급랭시설 건축 및 냉동물류시스템 개선
- 현과 촌의 농산물 물류시스템 및 인터넷 농산물 물류 서비스시스템 강화

✓ 농촌의 새로운 산업 육성(농촌체험, 농촌관광 등)

- 농촌관광 특색촌 등 브랜드 마을 건립
- 2020년까지 300개의 민족특색여행촌, 600개의 농촌관광마을 등 건설을 통해 1억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및 1,000억위안 이상의 농촌관광수입 달성

21

3. 운남성의 농업현대화 방향

4) 운남성 농업현대화의 주요 정책 방향(13차 5개년 계획 참조)

✓ 농산업에 농민 참여 시스템 개선

- 합작사를 통해 가공, 유통, 직거래 등 농민이 참여한 농촌산업 발전 촉진
- 농업기업과 농민 또는 합작사 간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급관계 구축
- 농업기업이 농산물 생산기지 건립, 우량품종 보급, 기술지도, 시비, 수매 등 지지

✓ 농촌 창업 촉진

- 대졸자, 농민공, 퇴역 군인 등이 농민합작사, 가정농장, 농기업 등 창업 촉진
- 창업을 통해 매년 50만개의 농촌 일자리 창출

✓ 농민공의 시민화 안정적 추진

- 2020년까지 500만명 내외의 농촌이주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의 안정적 도시 거주추진 : 호구인구 기준 도시화율 40% 내외 달성
- 농민공과 도시거주인 간 동등한 권리 실현

22

4. 시사점

4. 시사점

운남성 농업 위상 및 브랜드 향상 전망

- 운남성은 “사계절이 봄과 같다”는 우수한 이미지 및 자연환경 보유
-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규모화/기업화 위주의 농업현대화 전략

농업현대화는 적절한 농촌인구규모 고려 추진 필요

- 규모화/기업화 위주의 농업현대화는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기대
- 중산층 농민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한국의 경우 도시화가 90%를 넘어서고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어 기업의 농업참여 필요
 - 운남성의 경우 도시화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의 규모화, 기업화를 통한 현대화는 농촌인구의 적절한 구조조정 동반 필요

동북아시아 공동 진출 방안 모색

- 한국과 운남성 농기업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공동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운남성은 화훼 등 일부 농산물 생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 동북아시아의 최대 시장인 북경, 서울, 동경 등은 운남성과 기후조건이 상이
 - 화훼 등 운남성 농산물이 북경, 서울, 동경 등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화 과정 필요
 - 운남성과 한국의 농업 관련 기업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동북아시아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 모색 필요

24



THANK YOU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Session 4]

보건의료 · 바이오 협력

[발표 1]

한국-중국, 한국-원난성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협력방안

윤강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중국, 한국-원난성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협력방안



2016. 08.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윤강재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목차

- I.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변화
- II.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 III.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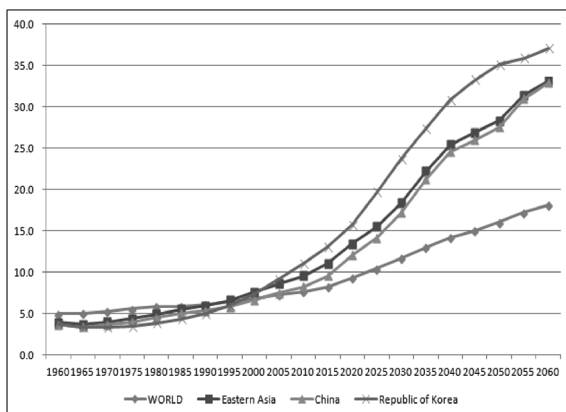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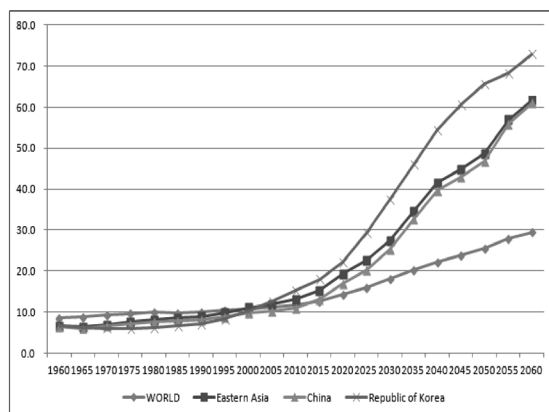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

65세 이상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자료원: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자료로부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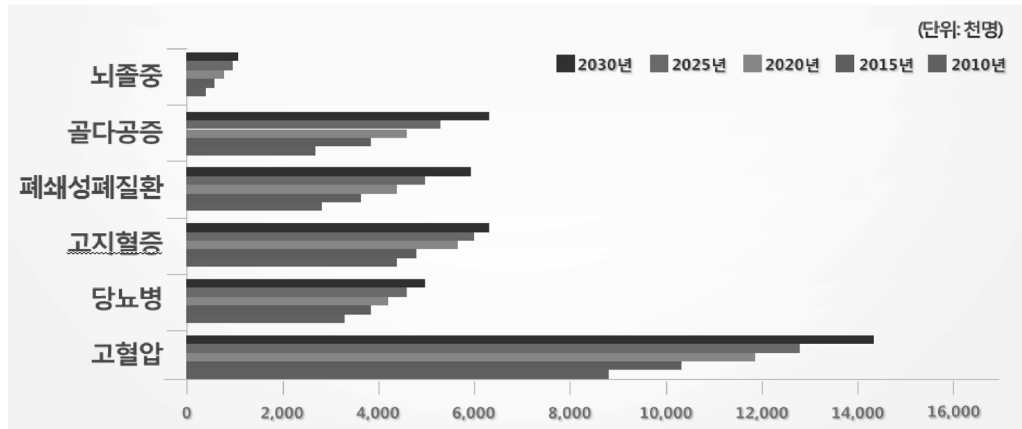
- 고령화사회(7%)⇒초고령사회(20%) 진입 예상기간: 한국 26년(2000~2026), 중국 35년(2001~2036)
프랑스 155년·미국 87년·독일 76년·일본 36년(통계청, 2015)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변화



▶ 질병구조 변화

주요 만성질환 유병자 수(한국, 추계)



자료원: 보건복지부(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로부터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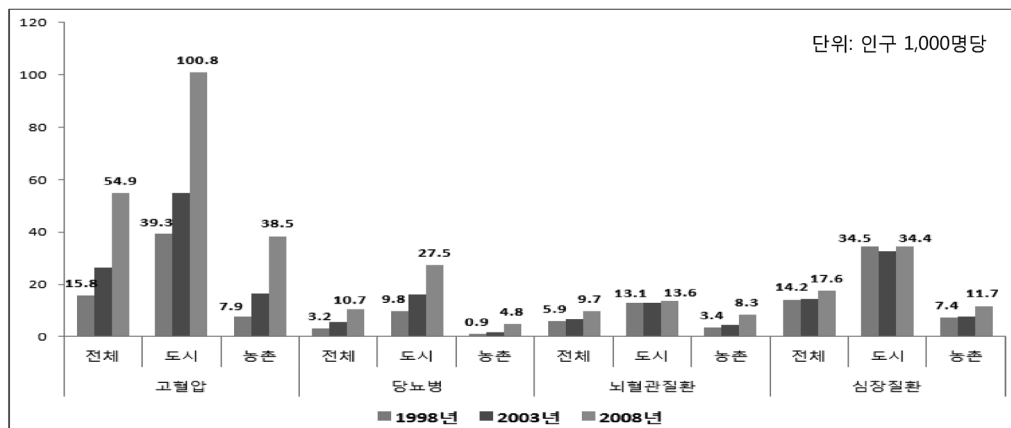
- 2025년에는 30세 이상 성인의 절반이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며, 10명 중 3명이 고혈압 유병자로 추정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변화



▶ 질병구조 변화

주요 만성질환 유병율 변화(중국)



자료원: 제2차~제4차 中国卫生服务调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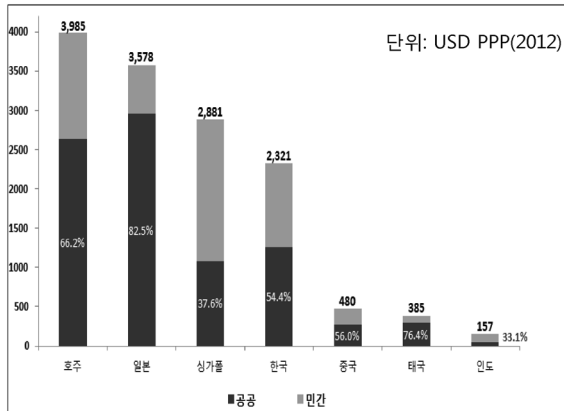
- 최근 10년 사이 만성질환 유병율이 급증하였으며, 2013년 제5차 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2008년 24.1%에서 2013년 33.1%로 상승한 것으로 발표(<http://www.cahep.com/index.php?m=articles&id=881.html>, 2016.7.12)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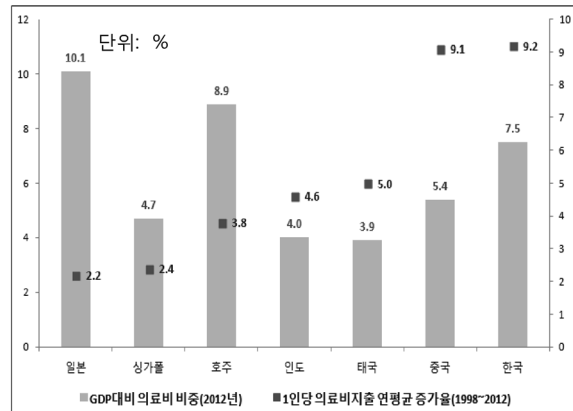


▶ 의료비지출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공공 및 민간



의료비 지출 비중 및 증가 추세



자료원: OECD.Stat, WHO National Health Account Database 자료로부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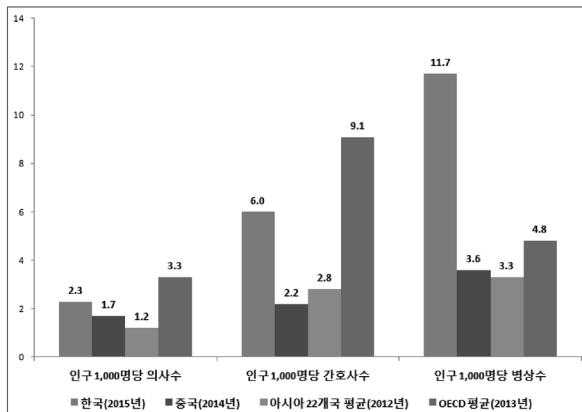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보장성 확대, 의료자원 확충 등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
- 지속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달 방식 구축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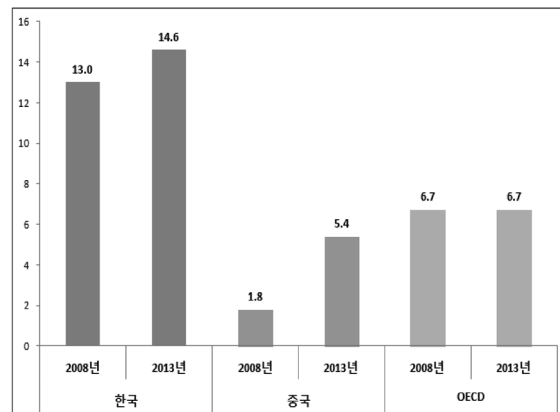
▶ 보건의료자원과 이용

인구 1,000명당 주요 보건의료자원



자료원: OECD.Stat 자료로부터 구성

인구 1인당 연간 의사진료건수



자료원: OECD,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0-2014

- 의사 인력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소득증대, 고령화, 의료보장성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예상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변화



▶ 보건의료 관점 변화: 규제에서 육성으로

	한 국	중 국
시장규모(예측)	약 87조 원(2016) ¹⁾	약 4.2조 위안(2015) ²⁾
주요 육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2011)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4) 바이오헬스 미래新산업 육성전략(2015) ICT R&D 중장기 전략(2013) 한의학 육성발전종합계획(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계획(2011)³⁾ 건강서비스 발전을 위한 국무원의견(2013)⁴⁾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에 관한 건의(2015)⁵⁾
주요 목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개방형 혁신, 제약-금융결합, 인프라 구축 ICT와 결합한 '힐링 플랫폼 서비스' 바이오헬스산업 R&D와 글로벌 임상 지원,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한의학 근거창출과 한의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대 전략신흥산업의 하나로 '바이오산업' 지정(신약·의료기기·농업·장비기술)³⁾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를 8조 위안까지 성장·육성시키고 건강양로서비스 구축과 의료보험 다양화 추진⁴⁾ 바이오의약품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대 산업 육성, 건강중국(健康中國) 구현을 위한 의료제도 개혁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⁵⁾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2) SK증권(2014) 3) 国家“十二五”科学和技术发展规划(2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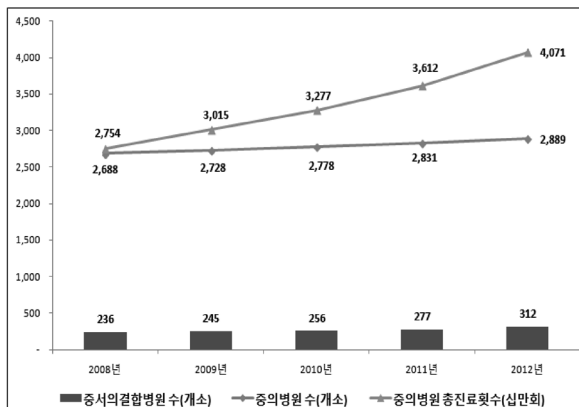
4) 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2013.10.) 5)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10.)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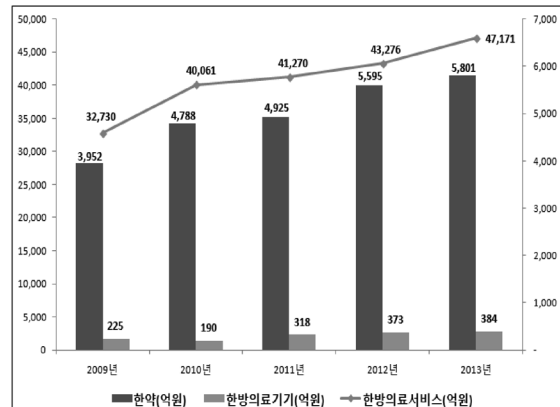
▶ 전통의학(Integrative approach to TM/CAM)

중의학 의료기관 및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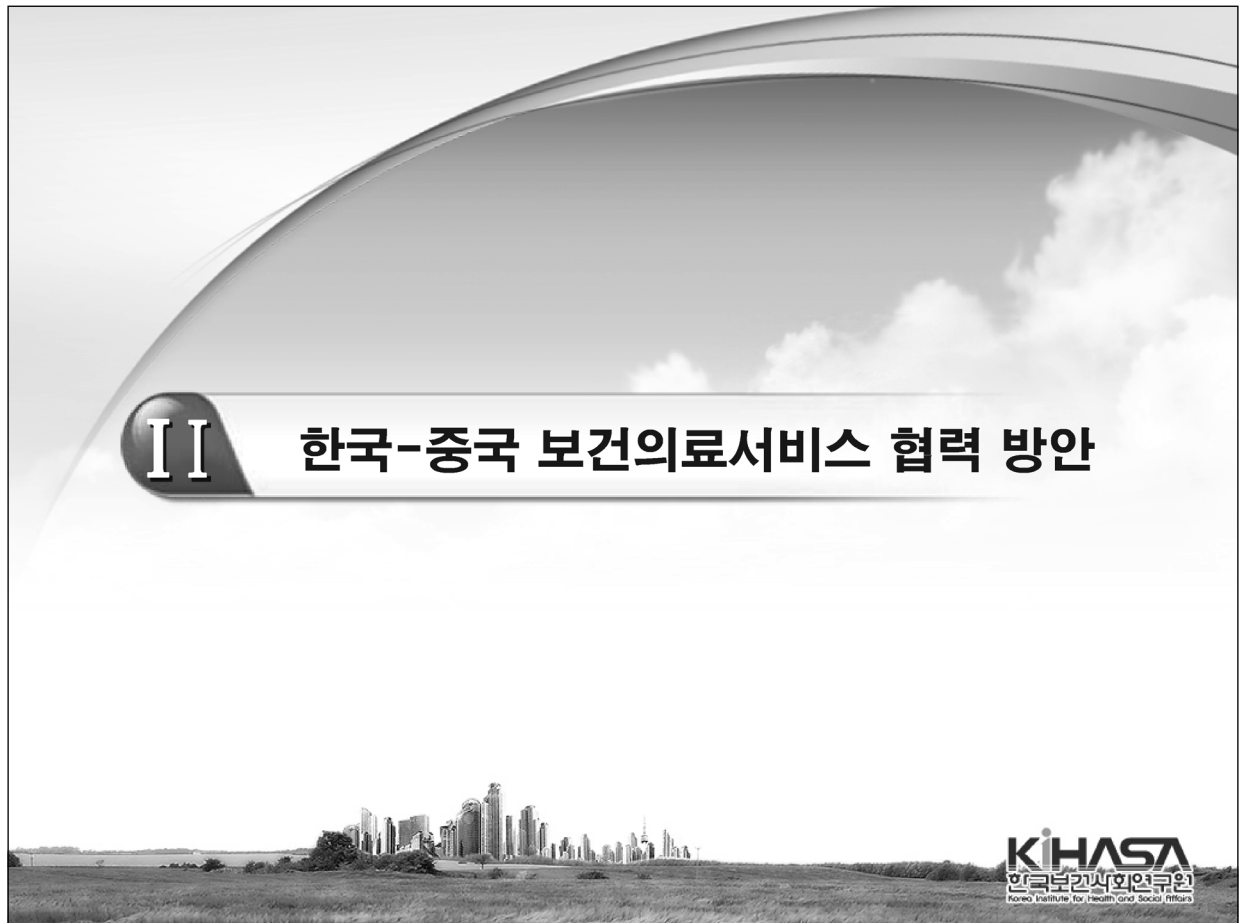
자료원: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 中国中医药年鉴

한의학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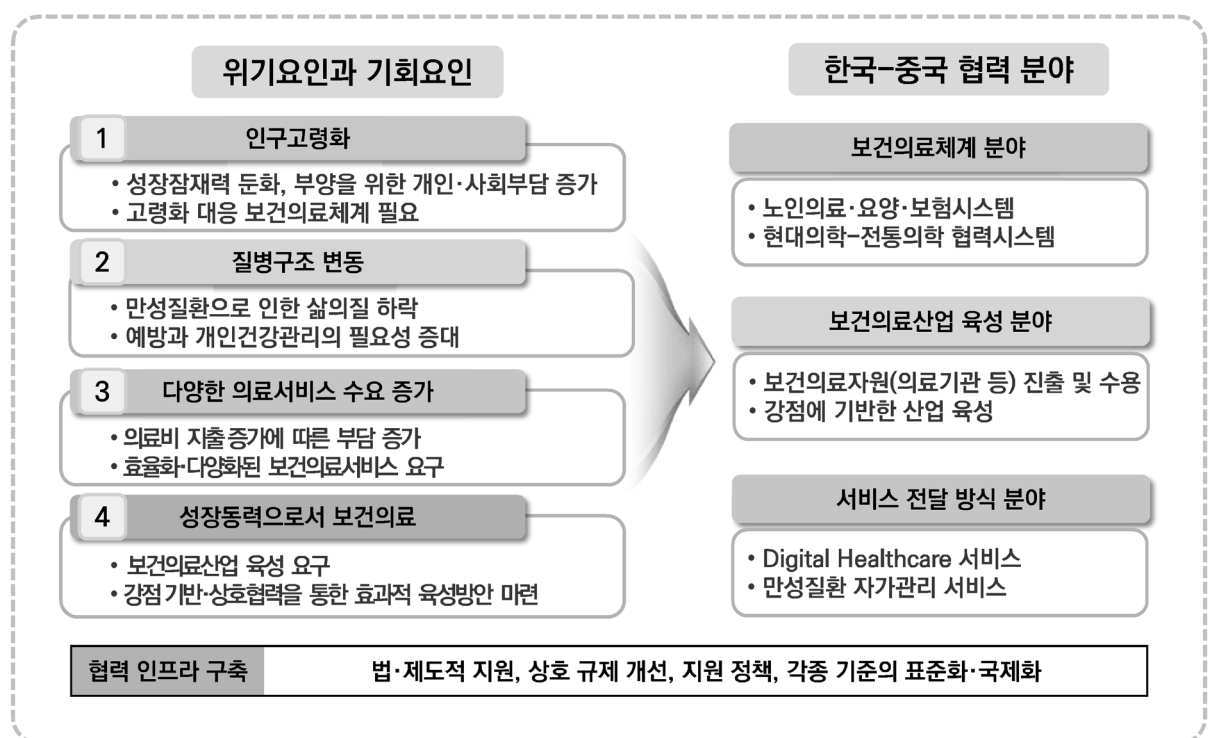


자료원: 보건복지부(2015)

-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과 중국을 모두 전통의학이 국가의 공식적 보건의료체계(국가정책에의 포함, 정부조직, 인력자원, 교육체계, 의료보장 등에서 인정받고 있는 '통합형 체계(integrative system)'로 분류
- 양국 모두 전통의학 육성의지가 강하며, 지속적으로 전통의학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한 국무원의견(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国发[2013]40号)

주요 임무	주요 내용	
의료서비스의 대대적 발전	△ 다원화된 의료기관 설립구조 형성 △ 전문적, 규범적인 간호서비스 발전	△ 의료서비스 자원배치의 최적화
건강양로(健康养老) 서비스 발전 가속화	△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의 합작 강화	△ 지역사회(社区) 건강양로서비스 발전
적극적인 건강보험 발전	△ 상업성 건강보험상품 다양화	△ 다양한 건강보험서비스의 발전
중의약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면적 발전	△ 중의 건강서비스 기능 제고	△ 과학규범에 입각한 중의보건지식과 상품 보급
건강서비스의 다양화	△ 건강검진 및 관리서비스 활성화 △ 건강한 문화활동과 여행 발전	△ 전국민의 신체활동(운동) 촉진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건강관련 상품의 개발, 활용 지원(지적재산권 보호 포함) △ 제3서비스의 발전: 영상검사, 임상실험, 중개연구 등 △ 의료클러스터 형성과 발전 지원	
인력자원 강화	△ 건강서비스 관련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인사(人才流动) 개혁, 처우 개선	
발전기반 강화	△ 의료서비스 정보화 촉진	△ 신뢰성 있는 체계 강화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보건의료체계 분야: 노인 의료·요양·보험시스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저출산·생산가능연령 감소

가족규모 축소

노인의 빈곤

➡ 고령자에 대한 공적보호체계 구축 필요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 未富先老, 空巢老人
- 전반적인 의료보험 확대,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특성에 부합하는 의료·양로·보험체계 구축과 자원 분배 부족
- 노인 의료·양로·보험체계 구축과 정비하는 향후 중국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목
- <13·5 규획>의 “小康 사회” 실현의 발전 이념인 ‘개방(開放)’과 ‘공향(共享)’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공평·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건립, 건강중국(健康中國) 건설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¹⁾

개방(開放)	▪ 은행, 보험, 증권, 양로 등 분야의 점진적 서비스 개방
공향(共享)	▪ 인구노령화 대응 행동 전개, 의료위생과 양로서비스 결합, 장기보호보험제도 탐색 ▪ 양로서비스 시장 개방

1)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10.)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 한국의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목적: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 경감
-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법률상 강제 가입, 전국민 의료보장체제 하에서 실질적 전국민 가입의 의미)
- 재원 및 부담 주체
 - 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현재 6.55%)을 곱하여 산정
 - 국고 지원금(국가):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100분의 20
 - 본인부담(수급대상자 직접 부담): 재가급여는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비용의 100분의 20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경
- 수급대상자 및 급여종류
 - 수급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일정한 절차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수급권 부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에 대한 급여
 - 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급여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간병비 등에 대한 급여
 - 복지용구 급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자원에 필요한 용구의 구입 또는 대여(품목 및 급여비용에 한도)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보건의료체계 분야: 현대의학-전통의학 협력시스템

- WHO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의학 수용유형을 'integrative system'으로 동일하게 분류하나, 통합적 일원화를 달성한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병존형(parallel) 이원화 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이원화 체계에서 기인하는 의료이용의 비효율성, 의료전문직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제기¹⁾ 하였고, 2016년 7월부터 의(醫)-한(韓)의(韓醫) 협력진료비용을 보장하는 시범사업 시행

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_print.asp?NewsNum=180238

	중 국	한 국
의료인력(면허)	서의사, 중의사 중서결합의사	의사, 한의사
전통의학 정부전담부서	있음(국가중의약관리국)	있음(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전통의학 전문의료인력	있음(중의사)	있음(한의사)
전통의학 교육체계	있음(중의약대학)	있음(한의학대학)
공적의료보장	포함	포함
면허간 업무영역의 배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서의 제한없이 상호 의료행위 가능 ▪ 별도의 통합의료인력으로 중서결합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에 의한 배타적 업무영역 구분 ▪ 면허 이외에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유형	integrative 일원화	parallel 이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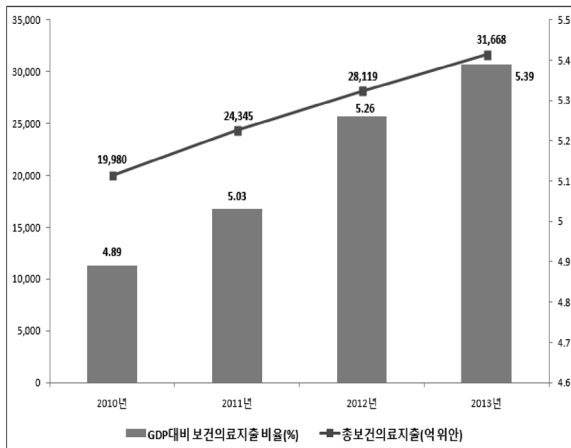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의료기관 상호진출 및 협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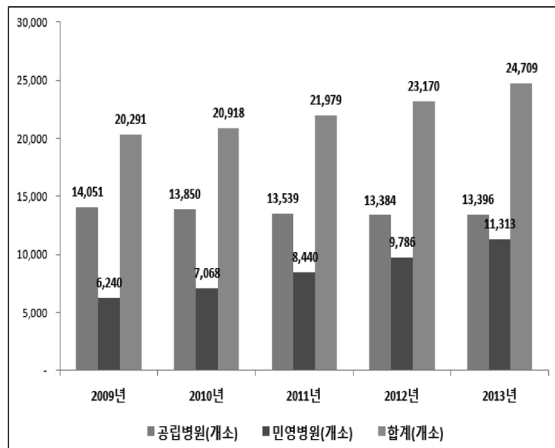
● 중국 의료시장 발전의 전망: ① 보건의료지출 증가 ② 민영의료기관 증가 ③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보건의료지출 증가 추세



자료원: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4&2015)

민영병원 증가 추세



자료원: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재인용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 의료시장 확대
- 의료전문인력의 상대적 부족
-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간 격차 존재
- 전문고급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 의료시장 확대
- 민간중심 자원+공적 가격통제(건강보험)
- 제한적인 영리의료기관 설립(경제자유구역)
- 의료기관 해외진출 장려

- ✦ 소규모, 특정 과목(피부, 성형) 협력은 지양하고 중대규모, 전문화·특성화 협력
* 사례: 서울대병원-악양시(2015.9) → 암·재활요양·건강검진·성형미용·의료인 교육
- ✦ 의료특구(省 정부 허가) 및 신구(新區, 국무원 주도)에서의 협력 활성화
*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년)에서 의료기관(합자, 합작)은 '제한항목'에 포함
- ✦ 공동 임상연구, ICT결합, 노인의료 등 차별화되고 수요가 높은 영역의 협력
- ✦ 한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투자개방형 협력
* 사례: 중국 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제주도 설립 승인

한국-중국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방식 분야: Digital Health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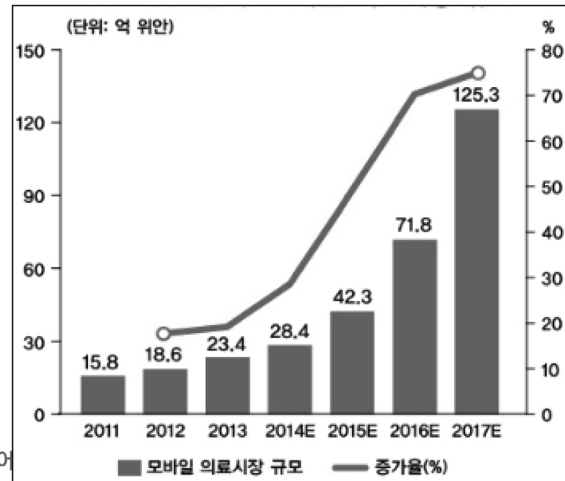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급성장

-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보급 확산
- 도시와 진전, 소득수준 증가
-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증가
- 지속적인 건강관리(예: 당뇨병-혈당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컨설팅

● 협력 가능 분야

- ICT기술과 융합한 기술 공동 개발·적용
: 전자처방전, 병원정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보플랫폼
- 만성질환관리서비스(건강컨설팅)
* 사례: 서울성모병원-상하이 룽진(瑞金)병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기반 만성질환 관리모델 구축' MOU(2015.9.)
- 바이오의약 분야 정보해독

중국의 모바일 의료시장 규모



자료원: iiMedia, 봉황망(鳳凰網)

<http://www.newspim.com/news/view/20140806000408> 재인용

III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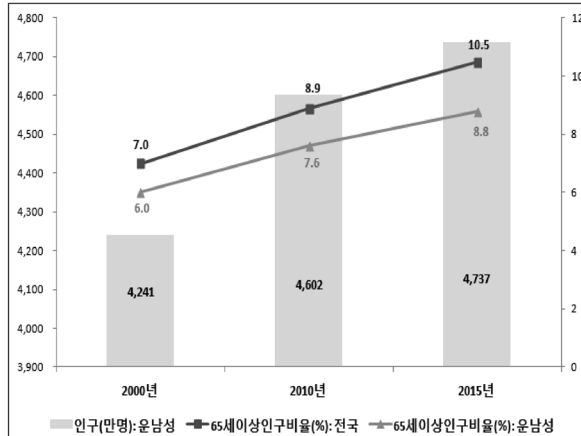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원난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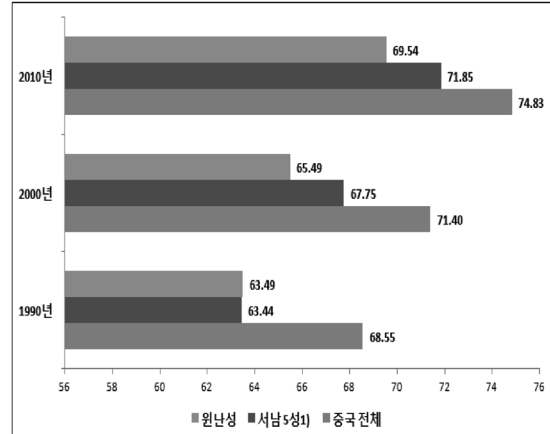
- 노인인구 비율은 중국 전체평균보다 낮으나, 기대수명은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함.

인구고령화 현황



자료원: 2000년 및 2010년: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5)
2015년: 2015年全国1%人口抽样调查主要数据公报(2016)

기대수명



자료원: 2000년 및 2010년: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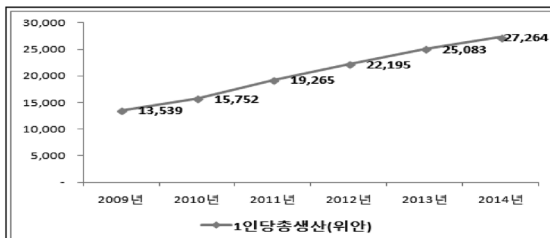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원난성 현황

- 원난성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 개발의지에 더불어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
- 31개 省·市 중 1차산업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관광과 숙박·음식업 등의 성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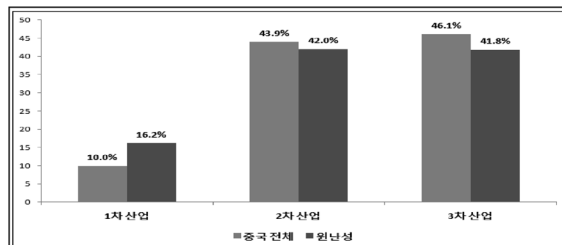
경제 현황



	원난성(2013)	최상위(2013)	최하위(2013)
1인당 총생산(위안)	25,083	99,607	22,922
가처분소득 (위안)	12,578	42,174	9,747
소비지출 (위안)	8,824	30,400	6,311

자료원: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4)

주요 산업 현황(2013년)



● 산업 키워드(KOTRA,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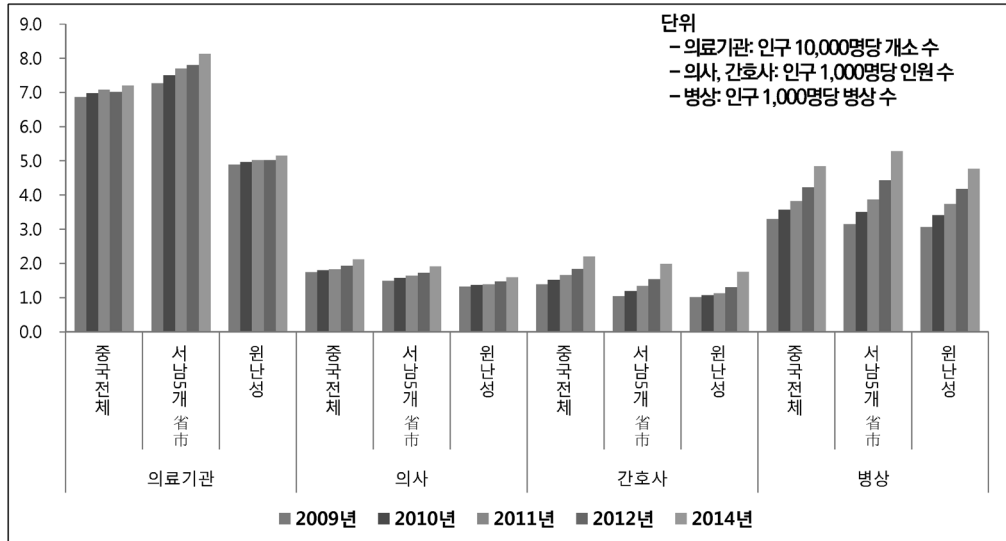
-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국-동남아 교두보 역할
- 환경무역을 위한 다양한 중점개발구
- 담배, 에너지, 농식품 등 우세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국가바이오산업기지, 국가급의약산업기지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원난성 현황

- 보건의료 자원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자원총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 서남 5개 省·市: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짱

자료원: 中国卫生统计年鉴, 각 연도 해당 항목에 연도별 인구수 적용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영역의 도출

기회요인(강점)

- 경제성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총량 부족
- 최근 원난성은 새로운 관광명사로 부상
- 우수한 중약 자원의 보유(云南白药), 품질관리 정책(中药材生产质量管理规范, 整顿中药材专业市场的标准)
-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관련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정책의 추진:
国家卫生计生委关于推进“一带一路”卫生交流合作三年实施方案(2015~2017)

위험요인(약점)

-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동부의 省·市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정보 부족
-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비자층을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 협력에는 부담
-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관련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심의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

한국-원난성이 각각의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교류를 늘려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서 시작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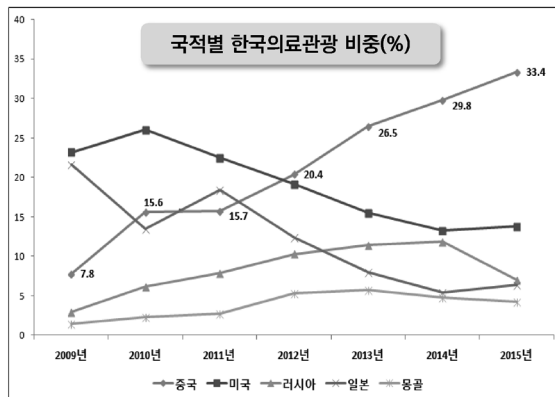
1 의료관광

- 한국-원난성 간 관광객 교류가 증가할 경우 [관광+방문국 의료서비스] 이용형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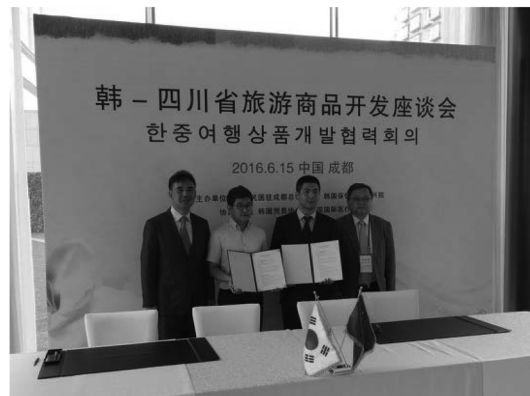
예: 한국 관광+성형·미용서비스, 원난성 관광+높은 품질의 중의약서비스

한-중(쓰촨성) 보건의료포럼(2016.6): 한국-쓰촨성 간 공동으로 의료관광 상품 개발, 규제 개선 등의 공동 협력

- 물류 등 경제협력이 증가하는 경우, 기반서비스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통계 각 년도



자료원: [http://blog.daum.net/khidiblog/235\(2016.7.21\)](http://blog.daum.net/khidiblog/235(2016.7.21))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2 인력 및 기술 교류

- 고령화와 만성질환 대비, 고급 의료기술에 대한 인력교육 및 경험 교환

- 최근 협력 사례: 대리주인민병원(大理州人民医院)과 한국 동산의료원 간 협력(2016.6.)
- 미네소타 프로젝트: 1954~1961년 총 226명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미국 연수를 통해 고급 의료기술 습득의 계기



자료원: [http://www.dgnews.co.kr/ArticleView.asp?rNum=56815&ASession=001023\(2016.7.21\)](http://www.dgnews.co.kr/ArticleView.asp?rNum=56815&ASession=001023(2016.7.21))

- 원난성 주력의료기관을 지정, 한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류·협력, 원난성 보건의료시장 확대

- 특히 공립병원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 제공에 유리
- 의료 영역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서비스와의 결합, 의료기관 정보, 전자처방전 발행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교류도 가능

한국-원난성 보건의료서비스 협력 방안



3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협력

- 원난성은 약용식물, 약용동물, 약용광물 등 중약 자원이 중국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
 - 제3차 전국중약자원조사에서 원난성은 30개 행정구역 중 가장 많은 중약자원 보유(中國藥材公司, 1995)
 - 천약(川藥), 운약(雲藥), 귀약(貴藥) 등의 도지약재(道地藥材)와 더불어 ‘운남백약(雲南白藥)’은 한국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 우수한 중약재 품질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정책은 한국정부 및 한약재 생산·유통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
 - 한국 정부의 『한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로서, 품질 표준 관리, 재배 및 규격 표준화, 안전성 확보, 제조·유통관리 선진화 등 추진
- 중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협력(中西醫結合) 경험 역시 한국 의료체계에 시사하는 의미가 큰 분야

谢谢聆听！
감사합니다.



[발표 2]

윈난(云南) 중국 한방의약 산업발전 전망

Huqingzhong 연구원

운남성 사회과학원

Yin Yang
the law of nature
원난(云南)
중국 한방의약 산업발전 전망



후칭중(胡庆忠) 연구원
2016년 8월

원난 중국 한방의약 산업발전 전망



一. 역사에 대한 회고

원난 한방의약은 중국 한방의약 발전의 축소판으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

1. 변증 치료, 맞춤형 의료
2. 의약동원(醫藥同源), 의술과 약술의 통합
3. 내외 교류 활발, 혁신 발전
4. 영리성 및 공익성 겸비



1. 변증 치료, 맞춤형 의료

변증 치료는 중국 한방의학에서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질환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변증"은 질환을 인식하고 진단하는 단계이고, "치료"는 변증의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치료를 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양자는 불가분한 하나의 완전체이다. 정확한 변증 기반 하에서 적절한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을 취해야만 기대하는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 한방치료의 원칙은 병증에 따른 처방, 예방 우선, 조기 치료로 병변 방지, 병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료, 바른 기운을 돕고 사악한 기운은 제거, 음양 조절, 오장육부 관리 등으로 표현된다. "같은 병에 다른 치료법"과 "다른 병에 같은 치료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채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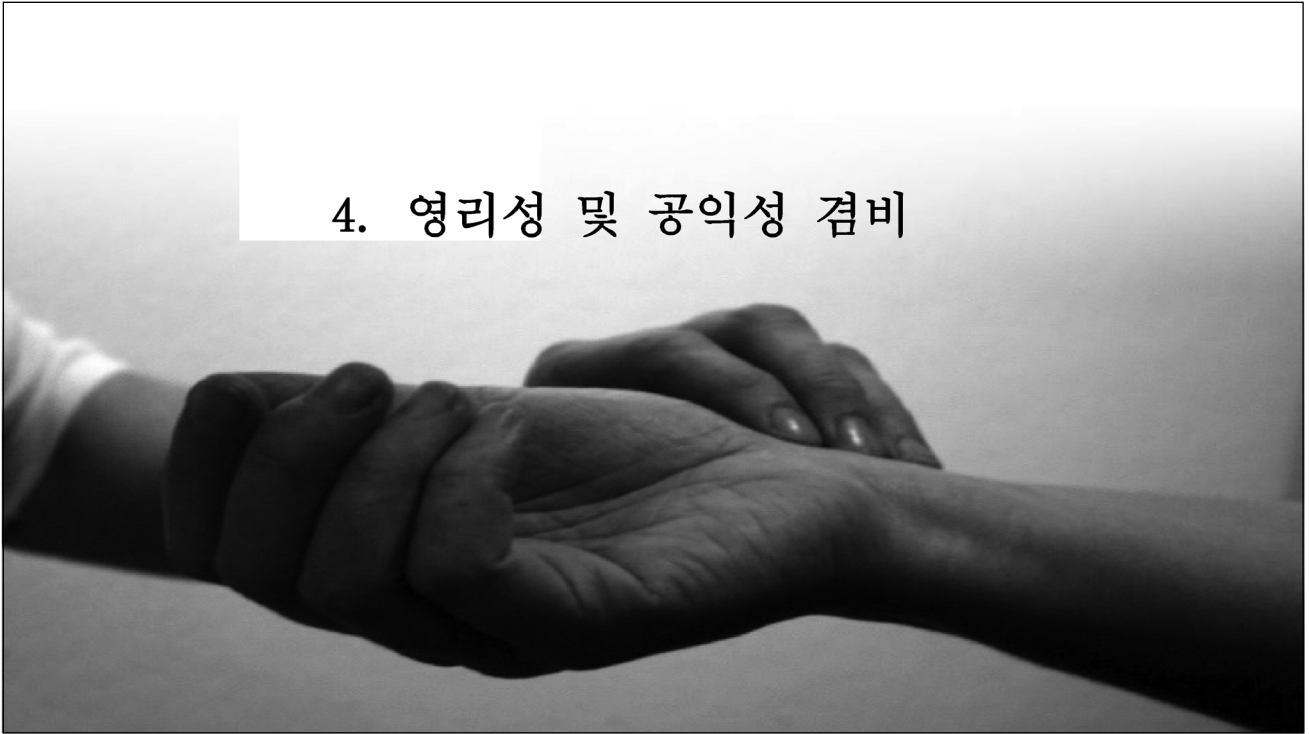
2. 의약동원, 의술과 약술의 통합

중국 한방의약에서는 "의약동원(醫藥同源: 의술과 약술은 근원이 같다)"을 중시해 의술과 약술을 분리하지 않는다. 중국 한방의약의 이론에 따라야만 경이로운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

3. 내외 교류 활발, 혁신 발전

원난 의약은 중국 한방의약과 전통의약의 두 가지 큰 체계를 포함하며, 전통의약에는 태(傣)의약, 이(彝)의약, 장(藏)의약, 묘(苗)의약 등이 있다.

4. 영리성 및 공익성 견비



二. 세계를 향한 시야

1. 중국 한방의약 글로벌화의 광활한 성장 전망
2. 중국 한방의약 글로벌화의 막강한 시장 잠재력
3. 중국 한방의약 글로벌화의 치열한 시장 경쟁
4. 중국 한방의약 글로벌화의 높아진 경쟁 장벽



1. 중국 한방의약 글로벌화의 광활한 성장 전망

빅헬스(big health)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자연 회귀에 대한 전세계적인 열풍이 일고 있다. 천연약물은 독성과 부작용이 없어 치료와 동시에 면역력을 현저하게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한방약의 현대화 및 국제화 추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2. 중국 한방의약 글로벌화의 막강한 시장 잠재력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 45억 명 이상이 중국 한방약초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향후 5~10년간 전세계의 중국 한방약 매출은 3,000억~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한방약의 글로벌화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 중국 한방약 등 천연약물은 연구개발 원가와 주기가 감소하고 연구개발 성공확률이 높아지면서 약품 수익률이 커져 시장 잠재력이 낙관적이라 각국 기업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3. 중국 한방의약 글로벌화의 치열한 시장 경쟁

서방국가와 제약업계 대기업들은 입법, 인증, 중국 한방약 배합기술 특허 등의 방식을 통해 중국 한방약 표준 제정,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미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중국 한방의약 산업은 치열한 경쟁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4. 중국 한방의약 글로벌화의 높아진 경쟁 장벽

(1)표준 장벽

(2)녹색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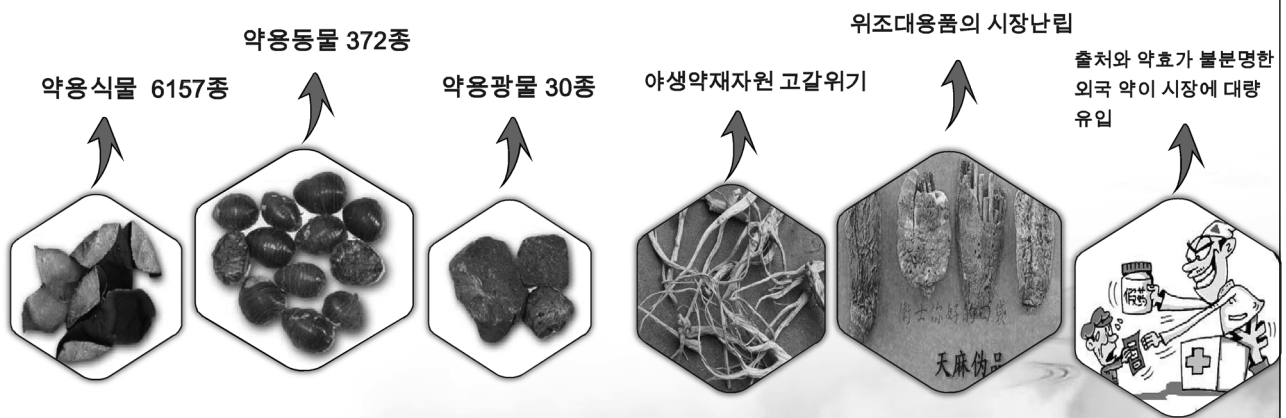
三. 현실에 대한 인지

원난은 4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1. 약물자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전이 적지 않다.
2. 소수민족 한방의약 문화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로 인한 충돌이 심각하다.
3. 중국 한방약재와 한방탕약 표준연구에서 선도적 입지에 있으나 이와 관련한 취약점도 있다.
4. 중국 한방천연약 중심의 산업구조가 이미 형성됐으나 이로 인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1. 약물자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전이 적지 않다.

원난의 중국 한방약물자원은 6,599종이 있다.



2. 소수민족 한방의약 문화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로 인한 충돌이 심각하다.

다양한 기후생태계, 풍부한 약물자원 및 다원화된 소수민족문화를 기반으로 소수민족마다 특유의 의약전통과 의약문화가 형성돼 있다.

문헌기록이 부족하고 구두로만 전수되어온 소수민족 의약술의 맥이 끊길 위기에 있으며 일부 전통적 민간요법은 이미 사라졌다.



3. 중국 한방약재와 한방탕약 표준연구에서 선도적 입지에 있으나 이와 관련한 취약점도 있다.

원난은 350개 중국 한방약재표준과 200개 한방탕약표준의 연구제정 및 개선작업을 이미 마치고 <원난성 중국한방약재표준> I-VII, <원난성 중국한방탕약표준>(2005년판) I-II를 제작했다.

의약산업체인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원난성은 화학약 및 화학원료약, 신생물제품, 의료기기 및 건강진단, 보조치료기기 제품 등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4. 중국 한방천연약 중심의 산업구조가 이미 형성됐으나 이로 인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1. 2014년 천연약은 윈난성 의약공업 총 생산가치의 62%를 차지했다.
2. 일정 규모를 갖춘 제약기업 중 중국 한방약, 천연약류 기업이 80%를 차지했다.
3. 의약공업품종 가운데 매출이 1억 위안에 이르는 품종 중 중국 한방약, 천연약류 제품이 75% 이상을 차지한다.
1. 전체 규모가 비교적 작고 시장 개척능력이 비교적 약하다.
2. 신제품 연구개발력이 비교적 약하고, 확보하고 있는 신약 생산인증서가 너무 적다.
3. 원료 심층가공능력이 비교적 약하고, 산업 후공정 기반이 부족하다.



四. 윈난에 대한 사색

주요 6가지 측면에서의 제안



1. 야생 약재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 한방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중국 한방약자원 전수조사에 따르면, 야생 약용 식물 종류와 자원량이 감소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자원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년 전에 풍부했던 약재가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약재 생산의 민간 기반과 야생자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2. 중국 한방약재 재식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중국 한방약 산업에 대한 양질의 원료 공급을 보장한다.

1. 중국 한방약재 재식농업을 활성화시켜 분산된 품종을 규모화, 규범화시킨다.
2. 윈난을 "한방약재의 고향"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
3. 형상, 내재된 질량을 중심으로 평가표준을 확정한다.



3. 신형 중국 한방탕약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국 한방약 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

중국 한방탕약은 의약 생물 시장에서 산업체인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위로는 중국 한방약재 재식농업의 발전을 견인해 농민들에게 수입원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아래로는 중국 한방약 완제품, 천연약, 보건식품, 기능성 식품 가공을 위한 원료를 공급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중국 한방의학 임상처방용 약재 원료가 되기도 한다.



4.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통해 윈난성 특유의 '건강한 여행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4대 헬스케어 산업군으로는 1) 중국 한방약, 소수민족약, 천연약의 생산, 가공, 판매 2) 기능성 보건식품의 생산, 가공, 판매 3) 기능성 화장품, 세정품, 의료위생보조용품 등의 생산, 가공, 판매 3) 천연생태 오가닉 건강식품의 심층가공 연구, 생산, 판매가 있다.



5. 의료위생사업 개혁을 심화시켜 중국 한방 의술과 약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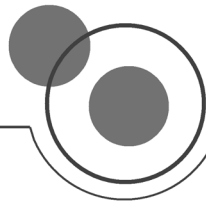
중국 한방 의술과 약술은 중국 의약사업 발전에 있어서 불가분의 요소이다. 의료위생사업 개혁을 심화해 중국 한방의료서비스 능력에 초점을 맞춰 의술과 약술의 상호보완, 상생발전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6. 중국 한방약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한방약 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기반으로 윈난 특유의 지리적 강점, 풍부한 생물자원 경쟁력 등의 유리한 조건 적극 활용해 중국 한방약 분야에서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국 한방약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한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